

K I E P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배찬권 · 금혜윤 · 김진오



연구자료 12-0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배찬권 · 금혜윤 · 김진오

연구자료 12-0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인 쇄 2012년 9월 24일
발 행 2012년 9월 28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좋은생각좋은사람들 T. 031-902-3105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306-3 94320

978-89-322-2064-2(세트)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배찬권 · 금혜윤 · 김진오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후방 연계산업들은 쇠퇴하여 제조업 성장이 국내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동 공급을 모두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멕시코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비용과 미국시장과의 인접성에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와 빈약한 인프라, 그리고 인적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비교열위 또한 존재하였다. 그 결과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9
제2장 NAFTA 가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13
제3장 주요 거시경제지표	19
1. 교역	19
2. 외국인직접투자	28
3. 생산과 생산성	32
4. 재정과 인플레이션	38
제4장 고용과 소득불평등	41
1. 고용과 임금	41
2. 빈곤과 소득불평등	49
제5장 농업과 농촌 경제	58
1. 농업 개혁과 자유화	58
2. 주요 농업 경제지표	61
3.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71
제6장 결론	74
참고문헌	81
Executive Summary	89

표 차례

표 2-1. 멕시코의 주요 개혁 · 개방 조치	15
표 2-2. NAFTA 발효 이전에 나온 계량경제모형의 예측치	17
표 3-1. 수출에서 마킬라도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7
표 3-2.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FDI 순유입액	30
표 3-3. 멕시코와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비교	34
표 4-1. 멕시코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57
표 5-1. 주요 농업 개혁 및 자유화 조치	59
표 5-2. 농업 개혁과 자유화의 기대효과	61
표 5-3. 농업 GDP 평균 성장률 및 전체 GDP 대비 비중	62
표 5-4. AUP별 평균 규모, 수 및 비중	67
표 5-5. 농지소유권 변화	68
표 5-6. 농업과 타 산업 간 임금격차	69

그림 차례

그림 2-1. 멕시코의 환율 및 총외채 추이	14
그림 3-1. 멕시코의 수출 추이	20
그림 3-2. 멕시코의 수입 추이	21
그림 3-3. 멕시코의 무역수지 추이	22
그림 3-4. 멕시코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23
그림 3-5. 멕시코의 대미 수출입 비중	25
그림 3-6. 전체 수출 중 제조업과 원유 수출비중	26
그림 3-7. 멕시코의 연평균 FDI 유입액	29
그림 3-8.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FDI 유입액	31
그림 3-9. 멕시코의 실질 GDP 추이	33
그림 3-10. 멕시코 제조업의 실질 GDP 추이	33
그림 3-11. 멕시코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 추이	35
그림 3-12. 멕시코의 전체 및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추이	36
그림 3-13.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 및 지출(GDP의 비중)	38
그림 3-14. 인플레이션의 변화	39
그림 4-1. 멕시코 총고용의 변화	42
그림 4-2. 마킬라도라의 고용	42
그림 4-3. 대미 수출과 고용	43
그림 4-4. 미국으로부터의 FDI와 고용	43
그림 4-5. 멕시코의 FDI 순유입과 총국내투자의 변화	44
그림 4-6. 멕시코와 중국의 대미 수출 비교	45
그림 4-7. 멕시코와 미국의 소득비율	47
그림 4-8. 명목 및 실질 월평균 임금의 변화	47
그림 4-9. 빈곤율의 변화	50
그림 4-10. 소득유형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	51
그림 4-11. 사무직 · 생산직 임금비율	52

그림 차례

그림 5-1. 농업교역 추이	63
그림 5-2. 옥수수 수입과 생산자가격 추이	65
그림 5-3. 절대빈곤율 추이	69
그림 6-1. 2005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R&D 비중	76
그림 6-2. 15~19세 전일제 및 시간제 학교 등록률 추이	78
그림 6-3. OECD 국가의 2006년 학생당 연평균 교육 지출액	78

서론

2012년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Korea·US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되었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험이 각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NAFTA로 인한 멕시코 경제의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 상황 자체가 멕시코 사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 그러나 멕시코 경제는 NAFTA 직후 발생한 폐소화 위기,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의 붕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후퇴와 회복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의 분석시점과 입장의 차이에 따라 평가는 전혀 달라졌고, 소모적인 논쟁만이 난무하였다. 결국 합리적인 토론의 여지가 없이, NAFTA 이후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주로 멕시코 농촌의 실상에 초점을 맞추어 반 FTA 정서를 자극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멕시코의 경험으로부터 생산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멕시코와 NAFTA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먼저,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모두 NAFTA의 영향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NAFTA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 NAFTA 18년의 참상'과 같은 표현에서 보이는 NAFTA에 대한 평가는 멕시코의 경제현실을 모두 NAFTA 탓으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¹⁾ 빈곤이나 소득불평등은 NAFTA 이전부터 멕시코의 경제역사에 줄곧 존재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NAFTA는 1982년 부채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개혁·개방의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고인플레이션, 석유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 등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1980년대 멕시코는 반복적인 경제위기를 겪었다. 1980년대 초 개방화 전략은 이 같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국내제도만을 정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대체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때조차도 개혁은 일어나기 힘들다. 개혁이 이루어진다 해도,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반쪽 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개혁에 대한 요구가 수그러질 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는 현 상태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특권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특권 집단이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제도의 생명력은 더욱 더 길다. 이것이 바로 1980년대 멕시코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며, 개방이 필요했던 가장 큰

1) 데이터에서 NAFTA의 효과만을 추출해내는 기술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NAFTA가 없었다면 멕시코가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かを 추정하여, NAFTA 이전 또는 이후의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가상적(counterfactual) 데이터이기 때문에, 멕시코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비교군으로 설정하거나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 여부 외에 다른 경제적 특성이 멕시코와 일치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고, 후자의 방법에서도 예상한 또는 예상치 못한 모든 경제충격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 전달경로를 실험모형에 정확하게 구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유 중 하나였다. 다시 말해서 멕시코는 내부적 역량에 의한 성장이 좌절되자 일방적(unilateral) 개방을 원동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NAFTA를 통해 이것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NAFTA하의 멕시코 사례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방대상이 미국이라는 점에서만 같을 뿐 멕시코와는 지리적 위치, 산업의 발전 정도, 기반인프라,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면에서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멕시코 사례가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험할 미래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멕시코처럼 미국과 수직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NAFTA가 모든 멕시코 경제문제의 원인이자 해법은 될 수 없고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결과를 가지고 NAFTA의 찬반을 논하거나²⁾ 한·미 FTA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NAFTA 협상 당시 멕시코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NAFTA를 비롯하여 멕시코 경제의 현재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멕시코가 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는지에 대해 역점을 두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멕시코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수준이 서로 다른 두 나라가 개방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두 경제가 수렴하는 것이 아

2) 멕시코 내부에서도 이제 NA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폐지)는 정치적 술사나 선언으로 이용될 뿐 이에 대한 논쟁은 끝난 것 같다. 2006년 실시된 멕시코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멕시코인은 NAFTA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일부는 몇몇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Villarreal 2010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학술 및 정책 보고서도 NAFTA의 유지 또는 폐지가 아니라 NAFTA하에서 멕시코 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어떻게 이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님을 말해준다. 경제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이 없다면 성장에 있어 최적의 균형에 도달하지 못한다. Stiglitz가 2004년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NAFTA의 깨어진 약속(Broken Promise of NAFTA)」은 멕시코가 부적절한 사회경제 개혁과 정부를 포함한 각 경제주체의 능력 부족으로 NAFTA가 가져다준 기회를 살리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³⁾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2장은 멕시코 경제사 속에서 NAFTA의 의미를 되짚어봄으로써 멕시코 경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제3장은 NAFTA 전과 후에 교역과 투자, 생산, 재정과 인플레이션 등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한다. 제4장은 NAFTA 평가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인 고용과 임금, 빈곤, 그리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제5장은 NAFTA 하의 대표적 피해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멕시코의 농업과 농촌경제의 현실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3) Stiglitz의 이 글은 단편적으로 해석되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근거로 자주 이용되지만, 실제로는 자유무역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이를 활용하지 못한 멕시코의 정책적 실패를 크게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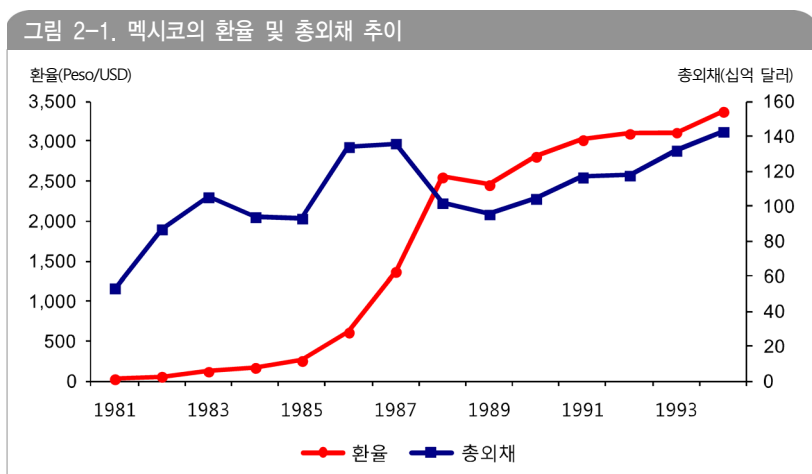
NAFTA 가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NAFTA는 역내 교역장벽을 단시간에 감소시키기 위한 회원국 간 타협의 성과로 볼 수 있으나, 특히 멕시코에 있어 NAFTA는 교역 촉진의 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1940~70년대까지 멕시코의 경제발전정책은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전략에 기반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 컴퓨터, 의약 산업과 같은 특정 제조업 부문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정책(sector-specific program)을 시행하였다. 이 국내산업들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최종재의 도매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조금과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핵심 투입요소, 에너지 및 기타 시설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기계 및 설비 수입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제공하였다. 이에 반해 특정 수입재의 수입 제한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공정가격(official price)제도와 수입허가제를 운영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많은 규제장치를 두었다(Ros 1994; Moreno and Ros 2004).

Moreno *et al.* (2005)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까지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멕시코는 점차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모해갔으며, 1940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1인당 실질 GDP는 매년 평

균 3.1%씩 증가하였다. 이 같은 성장의 원동력은 제조업 부문으로서, 이 기간 제조업 생산액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5%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 따른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마킬라도라(Maquiladoras)⁴⁾와 특정 산업 육성정책(sector-specific program)을 제외하면 수출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여 수출과 생산의 산업 간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의 이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아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공공부문의 외채의존도가 높아져 재정이 취약해졌다.



주: 1993년 화폐개혁으로 1페소는 기존의 1,000페소에 해당됨.

자료: 김원호 외(2000)를 참고하여 재작성.

1970년대 후반 멕시코는 하이테크 자본재의 수입대체에 실패하면서 성장동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1977년 멕시코 정부는 막대한 석유 수입

4) 마킬라도라(Maquiladora)는 인근 국가에서 원료와 장비를 무관세로 수입한 다음, 조립, 가공해 만든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멕시코의 조립공장을 의미한다. 원래는 미국에 인접한 멕시코 국경 마을에만 있었지만 NAFTA가 발효되면서 멕시코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마킬라도라는 외국인만 소유할 수 있었는데, 현재 대부분의 마킬라도라는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다(Polaski 2006).

(oil revenues)과 외채를 통해 새로운 개발정책을 추진했으나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고,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 및 외환 수입(exchange revenues)은 외부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1981년 국제 석유시장이 붕괴되고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멕시코는 재정과 외환 부문에서 이중고를 겪게 되었고, 1982년 대외채무불이행(moratorium)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폐소 가치는 폭락했고, 외채누적현상은 심화되었다. 결국 멕시코는 40년간 유지했던 팽창적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투자 및 산업화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민간부문과 시장에 맡기는 일련의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Moreno *et al.* 2005).

표 2-1. 멕시코의 주요 개혁·개방 조치		
분야	시기	주요 내용
상품 자유화	1985년	미국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대한 양자협정」 체결로 총 8,000여 개 품목 중 908개를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 수입허가제 폐지
	1986년	GATT 가입을 계기로 관세인하정책 실시 (1985년 25%대 평균 관세율 → 1992년 13%대까지 하락)
	1987년	48개 제조업 분야 중 25개 분야에서 수입사전허가제 폐지
	1988년	수입제품에 대한 공정가격제도 폐지
	1989년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유화 정책 실시
외국인 투자	1986년	GATT 가입을 계기로 FDI 규제완화조치 실시
	1989년	멕시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75% 제한조치 폐지
	1993년	「외국인투자법」 제정으로 기초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서 모든 FDI 규제 철폐
민영화	1982~88년	743개 국영기업 민영화
	1988~94년	핵심 국영기업 민영화(전화, 은행, 철강, 광산업, 제당)
	1996~99년	3대 철도노선 민영화
	1997년	연금부문 민영화

자료: Moreno *et al.*(2005)을 토대로 필자 정리.

1984년부터 추진된 멕시코의 경제발전전략은 무역 및 금융 자유화, FDI 규제 완화 및 민영화로 요약된다(표 2-1 참고). 특히 1986년 GATT 가입을 계기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FDI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75%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던 멕시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NAFTA 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1993년 12월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서 FDI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산업정책을 전환하여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수평적(horizontal)’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의 보호주의정책을 폐지하였다. 또한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산업분야를 개방하였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개방화 정책을 시행했다(Mattar *et al.* 2003). 멕시코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마련의 돌파구를 대미 개방의 확대에서 찾았다. NAFTA를 통해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인 투자여건을 개선시켜, NAFTA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역외국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과 선진마케팅기법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외채 누적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였다(Hufbauer *et al.* 2003).

멕시코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NAFTA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다. Whalley(1998)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NAFTA 협상에 참여한 주된 이유는 NAFTA가 멕시코의 경제개혁정책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Tornell and Esquivel(1995) 역시 NAFTA는 멕시코의 시각에서 볼 때 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고안된 장치라고 결론지었다. DeLong *et al.*(1996)은 NAFTA를 멕시코의 경제개혁정책과 공식적으로 연계시켜줌으로써 차기에 들어설 행정부들이 이러한 개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멕시코의 NAFTA 가입은 적극적인 산업개방화 전략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멕시코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

NAFTA가 출범할 당시 멕시코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낮은 제품가격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로는 장기투자가 촉진되고, 노동생산성이 증대되며 고임금의 안정적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증대되고 국내 경제가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증가로 국내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멕시코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전체적인 복지수준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Vega 2003). [표 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당시의 연구들도 대체로 고용과 실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NA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였다(Garza 2003).

표 2-2. NAFTA 발효 이전에 나온 계량경제모형의 예측치(1995년까지의 효과)							
구 분	IIE	Almond	KMPG	Berkely	Baylor	Michigan	Colmex
무역수지(십억 달러)	-6,0	-2,7	4,0	0,0	-1,8	-0,2	0,0
고용(천 명)	687,0	-158,0	1464,0	273,0	n.d.	0,0	0,0
실질임금(%)	0,0	n.d.	0,0	2,27	n.d.	2,9	16,0

주: II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1992), Almond: Clopper Almond, estudio para el U.S. Department of Labor(1992), KMPG: Peat Morwick, Economic Policy Group, Studio del U.S. Council of the Mexico-USA Business Committee(1992), Berkeley: Raul Hinojoza y Sherman Robinson, Departamento de Agricultura y Fuentes Económicas, Universidad de Berkeley(1992), Baylor: Roy G. Boyd, Handamer School of Business, Baylor University(1992), Michigan: Sillarc Brown, Universidad de Michigan(1992), Colmex: Horacio E. Sobarzo, El Colegio de México(1992).

자료: Garza(2003).

5) 미국 역시 유럽연합에 대응하는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무역수지 및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NAFTA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NAFTA가 멕시코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특히 멕시코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옥수수가 NAFTA를 통해 미국산 옥수수로 대체될 것을 우려하였다.⁶⁾ 미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멕시코 농촌인구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식량주권을 상실하게 되어 농촌경제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멕시코의 전통적 보호산업인 에너지 및 기초석유화학 분야를 비롯하여 금융 및 운송서비스업, 자동차산업을 개방하게 될 경우 멕시코의 대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어 대외적 변동요인에 더욱 취약한 경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NAFTA의 교역 및 투자 관련 제도에서 정부개입규정을 완화하고 외국기업의 참여제한을 철폐하게 되면, 미국의 독점기업 자본이 멕시코 기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존재하였다.⁷⁾

-
- 6)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흰옥수수 생산국으로 당시 총경작지의 60%에서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멕시코 전체 인구의 8%, 농업노동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약 300만 명이 옥수수 재배에 참여하고 있었다.
 - 7) NAFTA 이전까지 멕시코 정부는 국가안보, 고용효과, 기술기여, 산업 생산 및 경쟁력에 대한 일반적인 기여 등의 기준을 통해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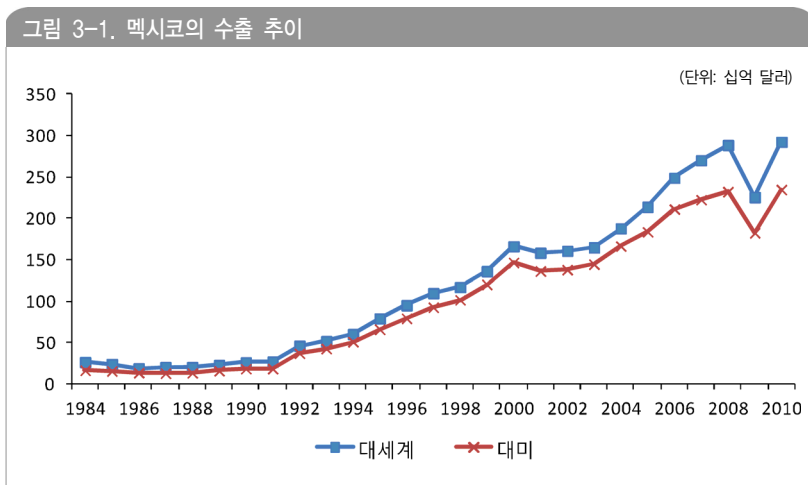
주요 거시경제지표

1. 교역

NAFTA 직전 멕시코는 미국산 제품에 대하여 평균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미국이 멕시코 제품에 부과하던 평균관세인 2.07%보다 거의 5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그뿐 아니라 관세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멕시코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은 멕시코 자동차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NAFTA 출범 이후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멕시코의 관세는 2.9%로 7.1%포인트 감소하였고, 멕시코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 역시 0.65%로 1.42%포인트 감소하였다(강문성 2001). 이렇듯 NAFTA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점차 낮아지면서 멕시코의 교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림 3-1]은 1984~2010년 멕시코의 전체 수출과 대미 수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NAFTA 이전 10년(1984~93년)과 이후 10년(1994~2003년), 그리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세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984~93년 동안 전체 수출은 266억 달러에서 518억 달러로 증가하여 매년 평균 7.7%의 성장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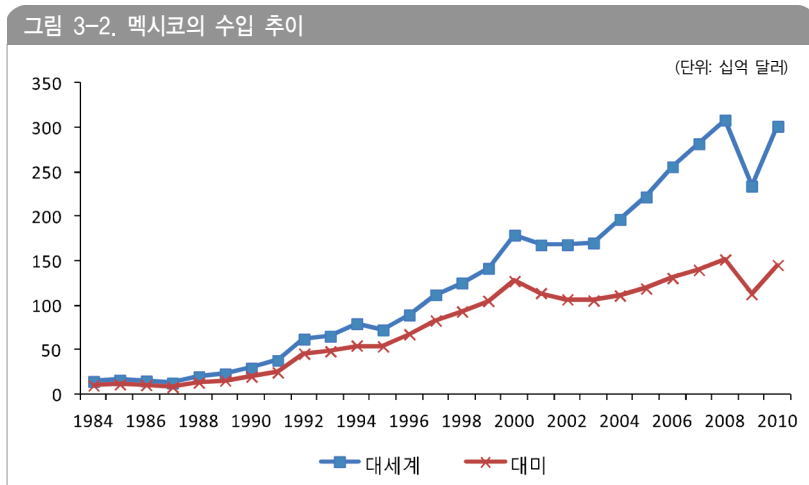
멕시코 전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 연평균 11.2%의 증가세를 보였다. NA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멕시코의 전체 수출은 605억 달러에서 1,647억 달러까지 늘어 연평균 11.8%씩 성장하였으며, 대미 수출 역시 511억 달러에서 1,446억 달러로 증가하여 전체 수출보다 높은 12.2%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4~10년 동안 멕시코 전체 수출은 1,878억 달러에서 2,925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7.7%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대미 수출은 1,664억 달러에서 2,348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5.9%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출증대는 NAFTA를 포함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수출촉진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⁸⁾



자료: UN Comtrade.

- 8) 대표적인 수출촉진정책으로는 ‘수출품 생산용상품 임시수입제도(PITEX: Programa de Importación Temporal para Producir Artículos de Exportación)’와 ‘분야별 촉진제도(PROSEC: Programas de Fomento Sectorial)’를 들 수 있다. PITEX는 직간접적으로 수출용 상품의 공정에 사용될 수입재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이며, PROSEC은 자격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특정 수출용 상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어떤 기업이든 중간수입재에 대해 특혜 관세(최고 5%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그림 3-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멕시코의 수입은 수출과는 다소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NAFTA 체결 이전인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수입 및 대미 수입의 증가세가 가장 컸다. 1984년 멕시코의 전체 수입은 145억 달러였으나 1993년에는 652억 달러로 4.5배 증가하였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00억 달러에서 48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NAFTA 발효 이후 2003년까지 멕시코의 전체 수입은 792억 달러에서 1,703억 달러로 2.2배 증가하였고, 대미 수입은 547억 달러에서 1,055억 달러로 1.9배 늘어나 수입의 평균증가율은 이전기간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2004~10년의 평균증가율은 좀 더 낮아져 전체 수입은 1,966억 달러에서 3,013억 달러로, 대미 수입은 1,111억 달러에서 1,453억 달러로 각각 1.5배와 1.3배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멕시코의 전체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1986년 GATT 가입을 계기로 적극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⁹⁾ 또한 NAFTA 발효 직후인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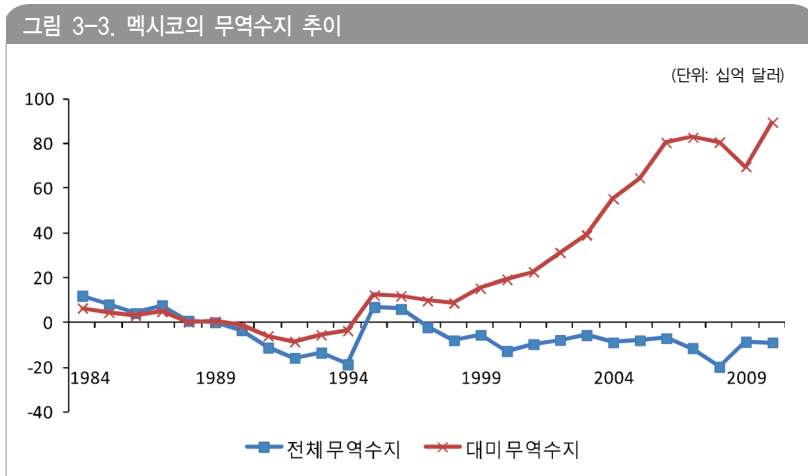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9) 1982년 멕시코의 최대관세율은 100%였으나 GATT 가입 이후인 1988년에는 20%까지 하락하였으며, 평균관세율 역시 1985년 25%에서 1988년에는 10%까지 낮아졌다.

12월에 발생한 페소화 위기로 달러에 대한 환율이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NAFTA에 따른 멕시코의 관세인하효과가 상쇄되어 1995년 수입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¹⁰⁾

[그림 3-3]은 1984~2010년 멕시코의 무역수지 추이를 나타낸다. 1984년 멕시코의 전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개방화 정책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NAFTA 발효시점인 1994년에는 18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대미 무역수지는 1984년 66억 달러 흑자에서 1994년 36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어, 전체 무역수지와 비슷한 변화패턴을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의 GATT 가입으로 외국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멕시코의 전체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율은 이미 낮았기 때문에 NAFTA가 대미 수출 증가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약했던 반면, 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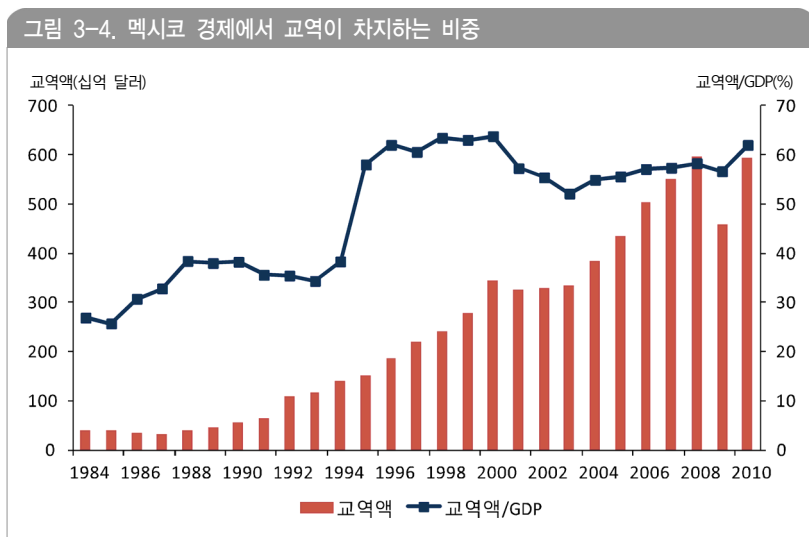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10) 페소화 위기 이전 1달러당 3페소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1994년 이후 1달러당 6.42페소로 페소 가치가 두 배 이상 하락하였다(Gould 1998).

코가 미국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수준은 NAFTA와 함께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낮아져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보다 컸던 요인도 있다. 1995년과 1996년에는 멕시코 경제위기에 따른 폐소화 가치의 폭락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무역수지와 대미 무역수지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전체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전환된 반면,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흑자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NAFTA 발효를 기점으로 멕시코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림 3-4]를 보면, 1984년 멕시코의 총교역액은 410억 달러였으나 1994년에는 1,397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5,937억 달러에 이르렀다. GDP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높아져 1984년 26.9%에서 1994년 38.4%로 늘어났으며, 1998년에는 63.5%까지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다소 그 비중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2010년 6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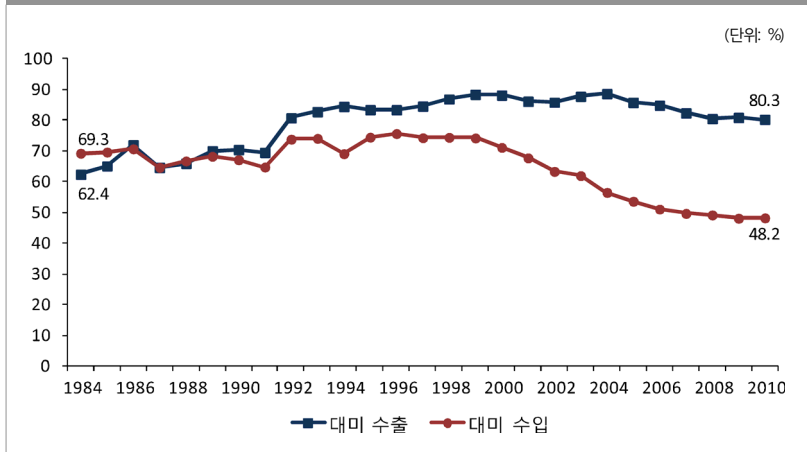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CEIC Database.

멕시코는 1980년대부터 이미 적극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해왔고, 1994년 말부터 1995년까지는 폐소화 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1994년 이후 나타난 교역 변화가 모두 NAFTA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Gould(1998)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중력모형(gravity model) 분석을 통해 소득 및 환율 변화 효과를 제외한 NAFTA에 따른 무역효과만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213억 달러,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20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Krueger(1999)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한 중력모형으로 NAFTA가 멕시코의 교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NAFTA 이후 멕시코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 협정보다는 1986년 GATT 가입에 따른 관세 인하와 1994년 멕시코 폐소화 위기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Krueger(1999, 2000)는 또한 1990~96년 동안 NAFTA 회원국과 그 외 국가들의 교역 규모 및 패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시기는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였음을 강조하면서 NAFTA가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Romalis(2002)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NAFTA에 따른 관세 특혜로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이 25%에서 50%가량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주요 수입품이 기존 미국의 수요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해왔던 제품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NAFTA가 실질적인 무역전환효과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NAFTA가 멕시코와 미국 양국간 교역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그림 3-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4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내내 멕시코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특히 수

11) 멕시코와 캐나다 간 수출입 변화에서는 NAFTA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멕시코의 대미 수출입 비중



자료: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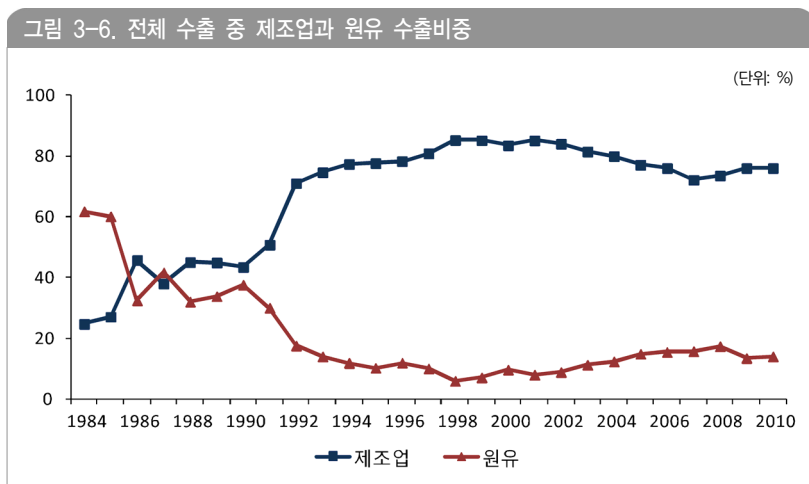
출에서 미국은 멕시코의 독보적인 상대국이었다.¹²⁾ 1984년 멕시코 전체 수출에서 미국은 62.4%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NAFTA가 발효된 1994년에는 84.5%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4년 88.6%까지 높아졌다가 2010년에는 80.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대미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출구조로 인해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기의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¹³⁾ 게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아시아제품과의 경쟁, 특히 중국제품과의 경쟁으로 NAFTA의 효과와 멕시코의 지리적 이점이 퇴색되면서, 유가상승시기에도 전체 수출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멕시코의 수입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984년 69.5%에서 1996년 75.7%까지 높아졌다. 이후 멕시코가 수입선 다변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미국의 비중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0년에

12) 캐나다가 멕시코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2010년 수출에서는 3.5%, 수입에서는 2.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13) 이는 똑같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의 통상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칠레는 현재 아시아지역(34.5%), EU(23.7%), 라틴아메리카(16.7%) 등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성공했다(Cordellier 2006, 재인용: 이성형 2007).

는 48.2%까지 떨어졌다.¹⁴⁾

1980년대 후반 이래 멕시코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NAFTA 발효로 인해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기회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Bulmer(2001)에 따르면, NAFTA를 계기로 멕시코 제조업이 미국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면서 역내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증가하였다. [그림 3-6]과 같이 1984년 멕시코의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과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8%와 61.8%였으나, 1994년에는 77.4%와 11.9%로 오히려 제조업이 훨씬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원유 수출비중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제조업 수출비중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서서히 하락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다시 증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databank.

14) 멕시코는 NAFTA 발효 이후 몇 년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였는데, 1995년에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G3(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 1998년 니카라과, 1999~2001년 사이에 이스라엘, EU,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Northern Triangle(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과 FTA를 체결하였다.

가하여 2010년에는 제조업 수출과 원유 수출의 비중이 각각 76%와 14%를 기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oreno *et al.*(2005)은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제조업 부문의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의 변화를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멕시코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점유율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수출에서 마킬라도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공장 수	수출	총수출 대비 비중
1980	578	2,519	14.0
1985	789	5,093	19.0
1990	1,924	13,872	34.1
1995	2,265	31,103	39.1
2000	3,655	79,467	47.8
2006	2,811	111,824	44.7

주: 2006년 자료에서 공장 수는 2004년의 값임.

자료: Banco de México; INEGI.

멕시코 제조업 분야의 수출 증가는 마킬라도라(Maquiladoras)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것으로 [표 3-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80년 멕시코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던 마킬라도라 산업의 수출비중이 1990년에 34.1%, 2000년에 47.8%까지 높아졌다. 이는 NAFTA가 다국적기업과 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경 간 교역과 같은 형태의 기업내무역(intra-firm trade)을 크게 증가시킨 가운데, 마킬라도라 기업들 대부분이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였기 때문이다.¹⁵⁾ OECD(2002)에 따르면, 1992년에서 1999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기업내수출이 3% 이상 증가하였는데, 1999년 총수출의 2/3 이상이 기업내수출이었다. 이와 같이

15) 마킬라도라 기업의 대부분은 American Home Products, Eastman Kodak, Ford, GM, IBM, Mattel, Motorola, Sony 등과 같이 매우 잘 알려진 미국 대기업들의 자회사였다.

마킬라도라 산업은 2000년대 초까지 멕시코 제조업의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대부분이 다국적기업의 하청계열 형태로 단순공정의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였기 때문에, 멕시코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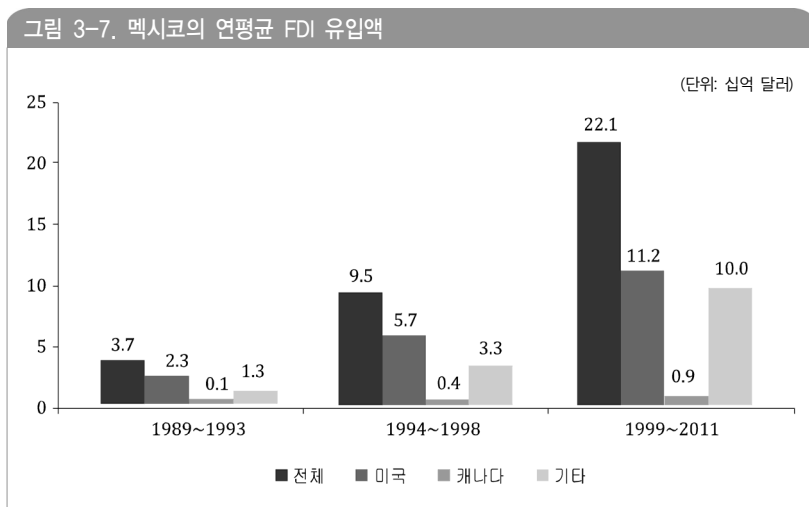
2. 외국인직접투자

1989년 5월과 1993년 12월 멕시코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허용 가능 산업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투자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NAFTA를 통해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FDI 활성화를 추진하였다.¹⁶⁾ NAFTA는 정치적, 법적 시스템을 통해 미국 및 캐나다 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멕시코를 세계 최고 수준의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모든 상품이 미국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 기업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의 다국적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 지역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림 3-기는 NAFTA 발효 이전과 이후의 5년, 그리고 1999년에서 2011년까지의 연평균 FDI 유입액을 비교하고 있다. 1989년에서 1993년까지 연평균 37억 달러 수준이던 멕시코에 대한 FDI가 NAFTA 발효 이후 5년 기간 동안에는 95억 달러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NAFTA 회원국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의 FDI는 물론 NAFTA 비회원국으로부터의 FDI도 크게 늘어, 멕시코는 미국 수출을 위한 역외국가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였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FDI 유입은 221억 달러로

16) NAFTA 협정문 제11장은 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중재기관 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재판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멕시코의 FDI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전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FDI 유입에서 미국과 NAFTA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비중이 각각 50.7%와 45.2%였다.



자료: Secretaría de Economía, 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

선행연구에 따르면 멕시코에 대한 FDI가 크게 증가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FDI 규제 완화 때문만이 아니라, NAFTA 체결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Sánchez and Karp(1999)는 1980년에서 1999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NAFTA로 인해 FDI가 매년 25.4%씩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Waldkrich(2003)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 NAFTA로 인해 멕시코 제조업의 수직적 특화가 진전되면서 멕시코로의 FDI 유입이 42% 가량 증가하였다. Lederman *et al.*(2003)은 1984년에서 1999년까지 NAFTA가 멕시코로의 FDI 유입을 매년 40%씩 증가시켰음을 밝혀냈다.

[표 3-2]는 1989년에서 2010년까지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FDI 순유입액을 보여주고 있다. NAFTA 발효 이전인 1989년에서 1993년의 기간 동안 멕시코의 평균 FDI 순유입액은 약 36억 달러였으나, NAFTA 발효 이

후 5년간은 93억 달러로 이전 기간에 비해 규모 면에서 2.6배 증가하였다. 1999년에서 2003년까지는 앞선 기간 대비 1.5배 증가한 139억 달러,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1.3배 증가한 186억 달러를 기록하여, 브라질을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체 FDI 중 멕시코가 40% 가량을 점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멕시코로의 FDI 순유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약 43억 달러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브라질을 포함할 경우 7.2%, 브라질을 제외하더라도 18% 수준에 불과하였다. 반면 브라질로 유입되는 FDI 규모는 2010년에 36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전체 라틴아메리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에 달하였다. 다시 말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구분	1989~93년	1994~98년	1999~2003년	2004~08년	2009년	2010년
아르헨티나	3,152	4,085	8,064	4,858	3,305	5,373
브라질	881	12,130	21,221	12,797	15,865	36,919
칠레	379	2,530	1,937	6,731	4,813	6,351
콜롬비아	591	2,427	1,533	6,045	4,049	256
멕시코	3,595	9,345	13,918	18,584	8,315	4,334
기타 ¹⁾	805	5,603	5,741	6,648	23,189	7,288
합계	9,402	36,120	52,413	55,662	59,536	6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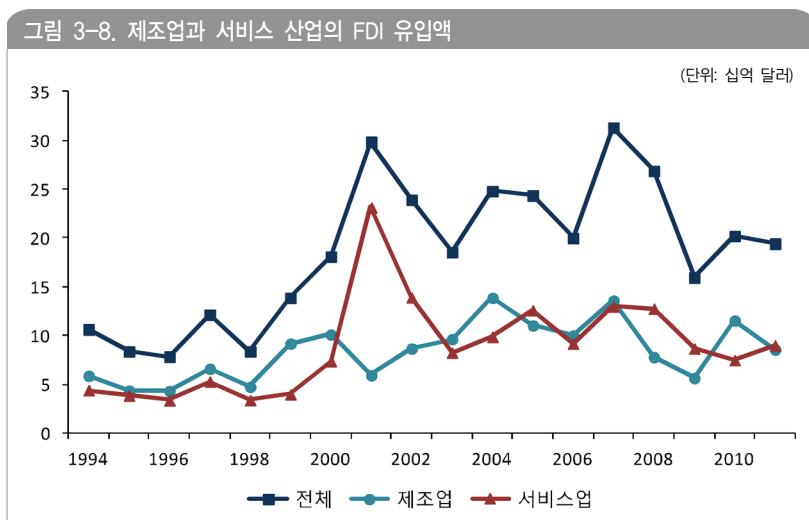
주: 1) 볼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를 포함.

2) 1989~93, 1994~98, 1999~2003, 2004~08의 값은 해당 기간의 평균값임.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각 연도.

[그림 3-8]에 따르면 NAFTA 체결 이후 2000년까지 멕시코의 FDI 유입은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제조업 부문의 FDI 유입은 정체된 반면, 서비스 부문의 FDI 유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처가 중국으로 전환됨으로써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마킬라도라 산업이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NAFTA의 첫해인 1994년 멕시코의 FDI 총유입액 중 마킬라도라의 비중이 8.4%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16%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약 26%에 달하였다.¹⁷⁾ 이후 마킬라도라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하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FDI 유입액이 크게 줄어 960여 개 기업이 마킬라도라를 떠났고 이로 인한 실직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권기수 2005). 이에 반해 서비스 부문의 FDI 유입은 2001년 시티은행이 멕시코의 배너멕스(Banamex)를 인수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이후로도 금융 및 소매 서비스 부문으로의 FDI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다.



자료: Secretaría de Economía, 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

1994년 이후 멕시코로의 FDI 유입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DI의 내용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7) 마킬라도라 산업에 대한 최대 투자자는 NAFTA 회원국, 그 중에서도 미국기업들이었으며, 이들이 마킬라도라 총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1%로 거의 절대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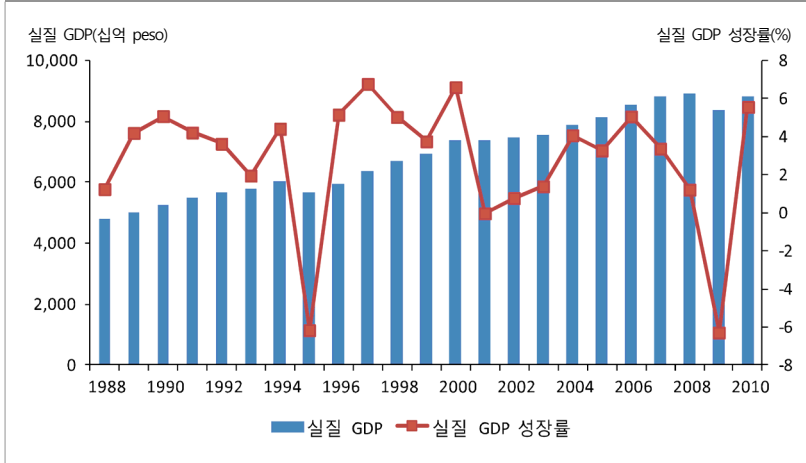
Salas(2003)는 NAFTA 이후 신규 투자형태로 적지 않은 외국인투자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새로운 생산설비와 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멕시코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대금으로 지급되었던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성형(2007)도 멕시코로 유입된 FDI 중 상당액이 마킬라도라에 대한 투자였거나 다국적기업 내부의 계정 이동에 의한 투자였으므로 실질적인 기술이전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비생산적 투자였다고 평가하였다.

3. 생산과 생산성

통상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으며, 멕시코 역시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3-9]는 멕시코의 실질 GDP 및 실질 GDP 성장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 실질 GDP는 2003년을 기준연도로 1988년 4조 8,000억 페소에서 1994년에는 약 6조 페소까지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8조 8,000억 페소로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실질 GDP 성장률의 변동성은 다소 심하여, 폐소화 위기가 있었던 1995년과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에는 -6%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 제조업과의 경쟁과 미국의 경기둔화로 마킬라도라 산업이 위기를 맞았던 2001년과 2002년에는 0%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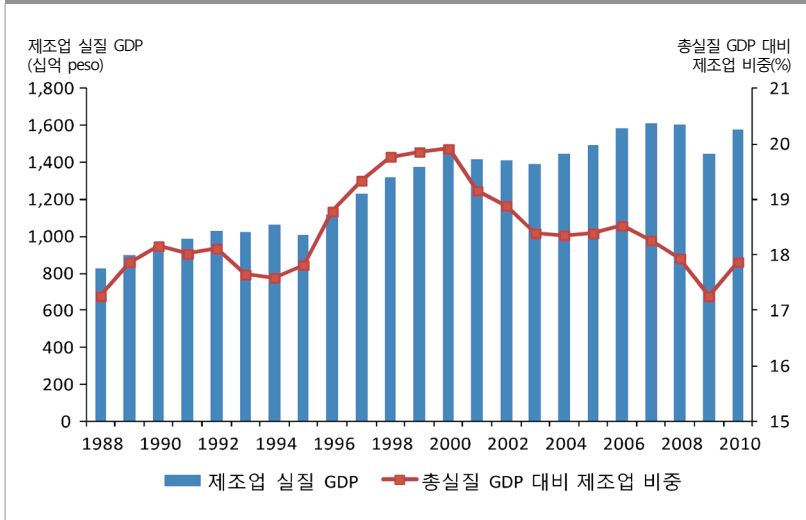
[그림 3-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조업 실질 GDP는 1988년 8,290억 페소에서 1994년 1조 630억 페소로 증가했으나 1995년에는 전년 대비 4.9% 하락하였다. 1996년부터 멕시코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전년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00년에는 1조 4,730억 페소까지 늘어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시장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와의 동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조업은 성장과 후퇴를 반복

그림 3-9. 멕시코의 실질 GDP 추이



주: 실질 GDP는 2003년 기준.
자료: OECD.

그림 3-10. 멕시코 제조업의 실질 GDP 추이



주: 실질 GDP는 2003년 기준.
자료: OECD.

하였다. 즉 2000년대 초반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멕시코 제조업의 실질 GDP는 하락하였으나, 2003년부터 회복하여 2007년에는 1조 6,107억 페소에 이르렀다. 실질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까지 1995년 폐소화 위기 시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0년 19.9%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멕시코 제조업의 성장은 대체로 정체된 반면,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이다.¹⁸⁾

NAFTA가 멕시코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크진 않지만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Kose *et al.*(2004)은 폐소화 위기 이후인 1996년에서 2002년까지 멕시코와 여타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였다. [표 3-3]에서 나타나듯이, 멕시코의 성장률은 4%로 4.2%인 한국 보다는 낮지만,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멕시코에서 GDP에 대한 수출과 투자의 기여도가 NAFTA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⁹⁾ 박현수·곽수중(2007)은 세계적인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석유 수출증가율 및 유가변화율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NAFTA가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표 3-3. 멕시코와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시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한국	멕시코
1980~2002년	0.8	2.1	4.7	1.9	7.2	2.5
1980~93년	1.3	1.7	4.6	0.2	8.2	2.2
1994~2002년	0.1	2.7	4.7	4.5	5.3	2.9
1996~2002년	-0.3	2.0	3.7	2.7	4.2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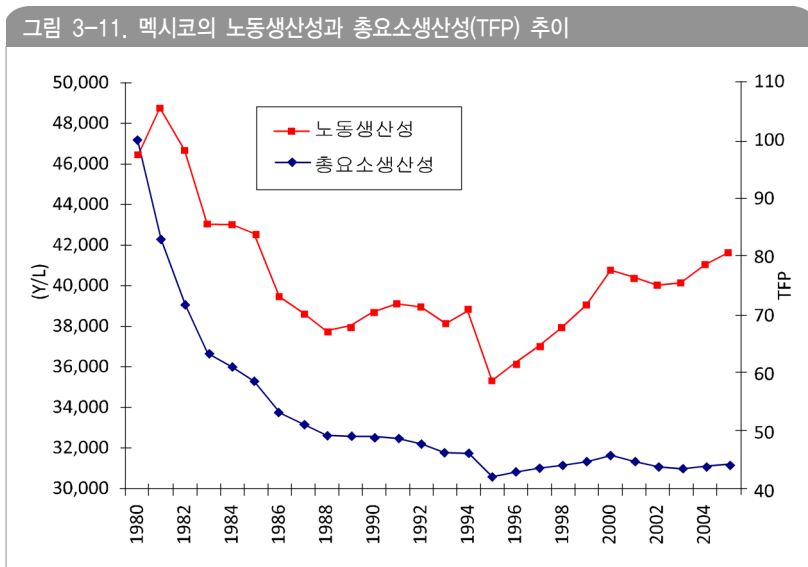
자료: Kose, Meredith, and Towe(2004).

18) 도소매업 및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의 실질 GDP가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6%에서 2010년 28.9%로 증가하였고, 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의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17.9%에서 21.9%로 늘어났다.

19) NAFTA 이전 GDP에 대한 수출 및 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1.5%와 0.5%였으나 1996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3.0%와 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NAFTA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하였고, NAFTA가 멕시코 경제성장률의 하향추세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아냈다. 그러나 Salvatore(2010)는 4%의 성장률이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NAFTA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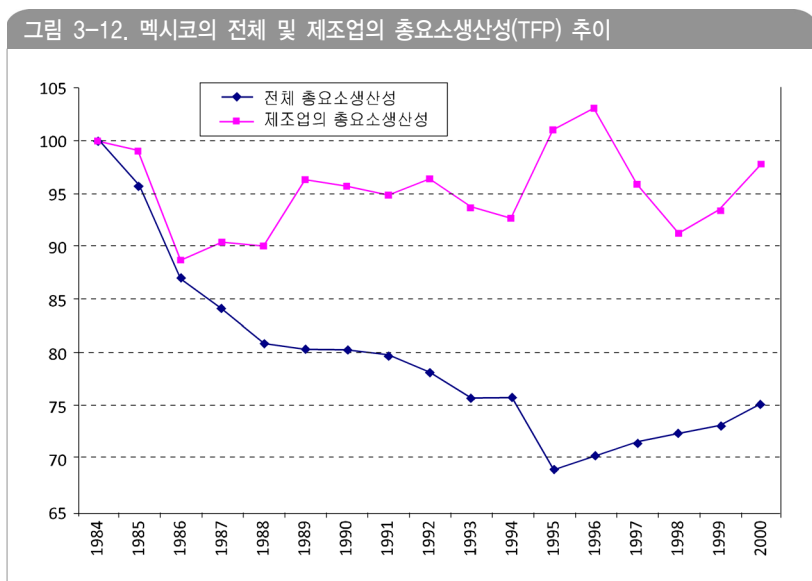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의 경제시스템과 기술수준을 흡수하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NAFTA가 멕시코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멕시코의 생산성 변화에 대한 최근 연구로서 Torres and Mollick(2011)은 멕시코의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과 노동생산성, 그리고 제조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²⁰⁾ [그림 3-11]에 의하면, 멕시코의 TFP은 1980년에서



자료: Torres and Mollick(2011).

20) TFP는 규모수익불변의 Cobb-Douglas 생산함수로부터 도출되었으며, 노동생산성은 노동력 1단위당 산출물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1995년까지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이후 매우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1995년 이후 TFP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멕시코의 생산성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데 대해, Bergoing *et al.*(2002)는 경제구조개혁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고, NAFTA를 비롯한 무역자유화 정책이 1995년 이후 생산성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자료: Torres and Mollick(2011).

[그림 3-12]는 1984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 전체 산업의 TFP와 25개 제조업의 TFP를 비교하고 있다. 전체 TFP와 제조업 TFP는 명확하게 비대칭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1994년 NAFTA 발효 이후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TFP가 급격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NAFTA를 통해 회원국 간 산업내무역이 증가하면서 주로 미국의 기술이 멕시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opez

(2002)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율을 대리변수로 NAFTA와 멕시코 제조업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NAFTA는 멕시코 제조업 TFP를 약 10%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iff and Wang(2002)은 1981년에서 1998년까지 16개 제조업 부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NAFTA 이후 중간재 교역의 증가가 멕시코의 제조업 TFP를 5.5%에서 7.5% 가량 개선시켰음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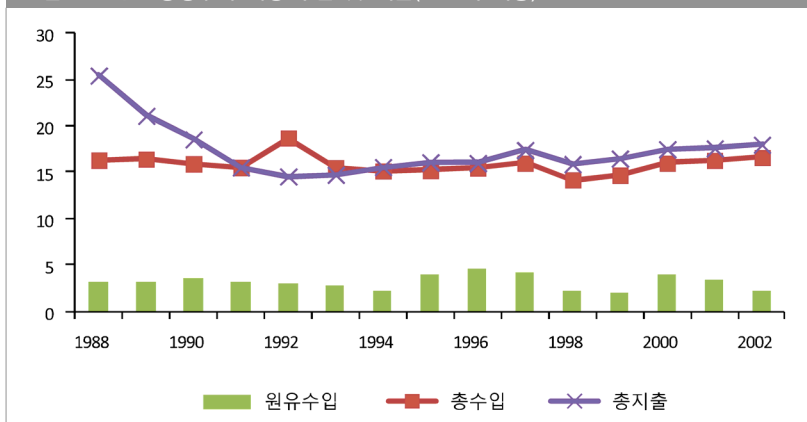
더 나아가 Torres and Mollick(2011)은 제조업 부문에서 산업내수입(intra-industry imports)이 제조업 TF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NAFTA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NAFTA 이후의 산업내수입이 제조업 TFP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AFTA로 인해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Technology Spillover)이 발생하였고, 마킬라도라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이 같은 효과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De Hoyos and Iacovone(2011)도 멕시코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1993년에서 2002년 사이의 기업수준 데이터를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입 여부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²¹⁾ 연구 결과에 따르면 NAFTA로 인한 수입관세 인하로 수입 경쟁(import competition)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기업의 생산성은 NAFTA 이전보다 높아졌다. 또한 네 가지 형태의 기업 중 생산성 증가효과가 가장 큰 기업은 중간재를 수입하고 최종재를 수출하는 완전통합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투입재의 수입을 활성화시키는 개혁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1)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① 중간재 수입 없이 최종재만 수출하는 기업(exporter), ② 중간재만 수입하는 기업(importer), ③ 중간재를 수입하고 최종재는 수출하는 기업(fully integrated firms), ④ 수출입이 없는 기업(non-integrated firms).

4. 재정과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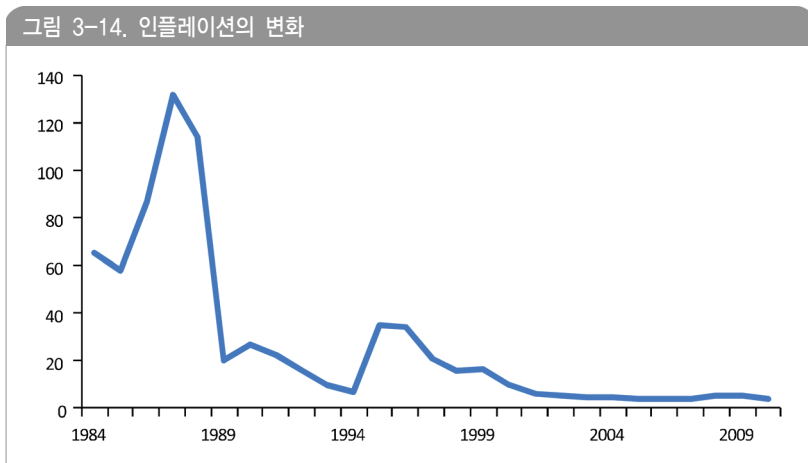
1982년 부채위기 이후 100%를 넘나드는 인플레이션은 멕시코 실물경제에 큰 위협이 되어왔다. 이러한 와중에 과다하게 누적되어온 재정적자, 외환보유고의 부족과 외채 압박, 그리고 취약한 은행시스템은 1995년 멕시코 폐소화 위기로 이어졌다. 멕시코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6개월 동안 폐소화의 가치는 50% 이상 급락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목표로 재정과 통화 정책을 대폭적으로 혁신하였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국내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재정균형을 이루기 위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졌다. 긴축적인 경제정책으로 정부예산은 삭감되었고 부가가치세와 공공요금에 인상되었으며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축소되었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도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멕시코는 재정과 인플레이션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평균적으로 GDP의 2%

그림 3-13.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 및 지출(GDP의 비중)



자료: OECD.

미만으로 축소되어 균형에 가까워졌고, GDP 대비 부채비율도 10% 미만으로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위기에도 그다지 크게 오르지 않았고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그림 3-13 및 그림 3-14 참고).



자료: OECD.

지표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재정은 여전히 취약했다. 일련의 세계개혁조치가 있었지만, 세금은 여전히 낮았고 정부재정은 원유 수입에 과다하게 의존하였다. OECD(2009)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멕시코는 취약한 세수 기반과 과도한 세금 면제 및 세제 감면 때문에 GDP 대비 비원유 세수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원유 수입을 포함하더라도 예산 수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²²⁾ 따라서 재정정책은 국제 원유가의 변동에 매우 민감했으며,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 여타의 많은 신흥국가들의

22) 멕시코의 세수는 GDP의 15%에 불과하여 36% 수준인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낮고, 국영 원유회사인 Pemex로부터의 수입이 연방정부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마저도 원유 수입의 50% 이상이 원유 생산 관련 경비로 지출된다.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재정이 취약하면 정부 지출은 수입이 많을 때 그만큼 많이 지출하고, 수입이 적을 때는 적게 지출하는 행태를 갖게 된다. 즉 재정정책이 경기와 동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는 교육, 보건, 빈곤퇴치, 그리고 도로, 항만, 수도 등과 같은 기반인프라의 구축을 저해한다. 멕시코 정부가 이 항목들에 대한 지출을 개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것은 원유가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구적인 세수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의 긴축기조 경제운영은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국내 성장률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긴축에 따른 폐소화의 가치 상승은 세계시장에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을 악화시켰고, 건실한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1995년 위기 때 폐소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통화는 불안정했다. 최근 경제시는 환율의 지속적인 절상이 무역적자와 외채의 급증으로 이어져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기반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멕시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목표는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다시 말해서 멕시코 경제는 모든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야 하며, 독립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구할 수 없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부정적 충격이 다른 나라들보다 멕시코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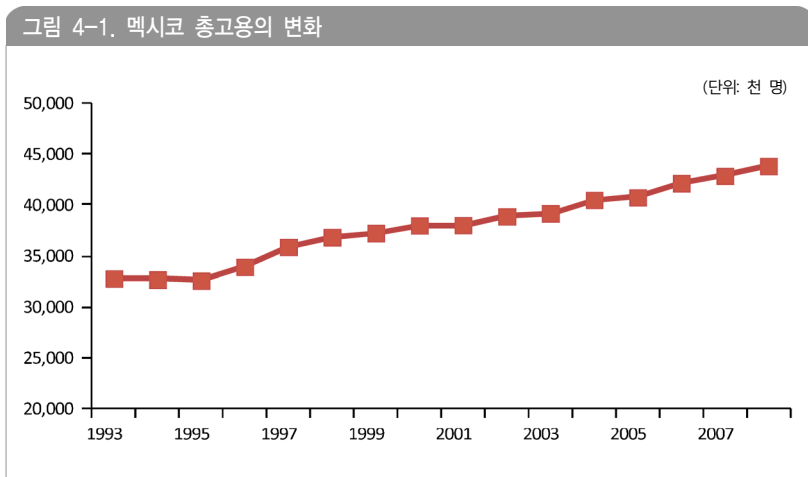
고용과 소득불평등

1. 고용과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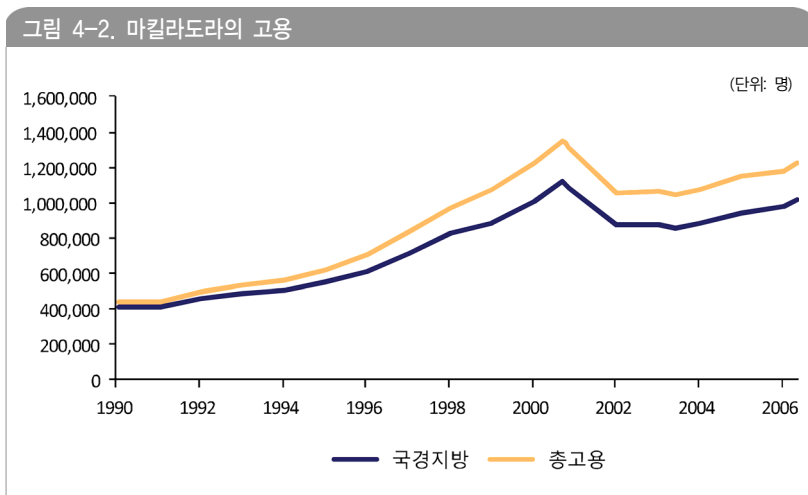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에 따르면, 1993년과 2008년 사이 멕시코에서 일자리는 3,300만 개에서 4,400만 개로 증가하여 1,100만 개 가량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났다(그림 4-1 참고). NAFTA 체결 후 멕시코의 고용은 주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마킬라도라 산업의 고용은 NAFTA 시행 처음 6년 동안 크게 늘어 2000년 130만 개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03년에는 100만 개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6년에 다시 120만 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과 가까운 북부 국경지방에서의 고용이 멕시코 제조업의 고용 증가를 견인하였다. [그림 4-1]과 [그림 4-2]에 나타나는 것처럼, NAFTA 직후와 2000년 전후 마킬라도라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서의 고용 확대는 농업부문에서의 고용 손실로 상쇄되어 총고용이 오히려 소폭 감소했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승만을 기록하였다.

NAFTA 발효 이후 크게 늘어난 수출과 FDI의 고용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멕시코의 고용지표는 대미 수출액의 변화와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4-3 참고). 이는 멕시코 수출산업과 국내산업

의 연계성 부족으로 수출 자체가 멕시코의 고용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Velut(2011)에 따르면, 마킬라도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중 멕시코산 중간재의 비중이 5%에 불과하여 수출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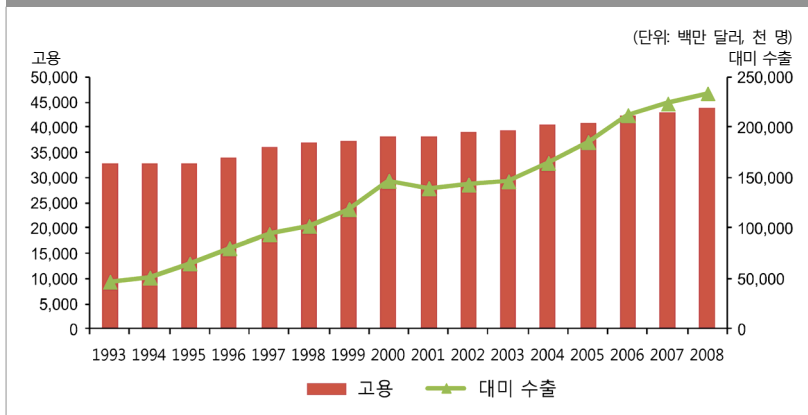


자료: ILO.



자료: Mendoza(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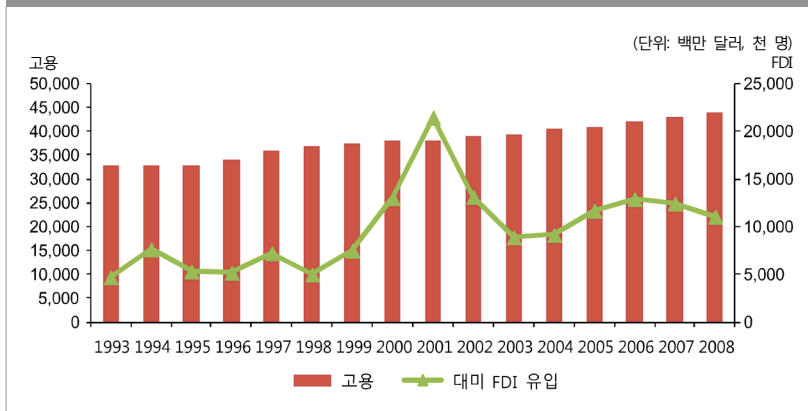
그림 4-3. 대미 수출과 고용



자료: OECD, I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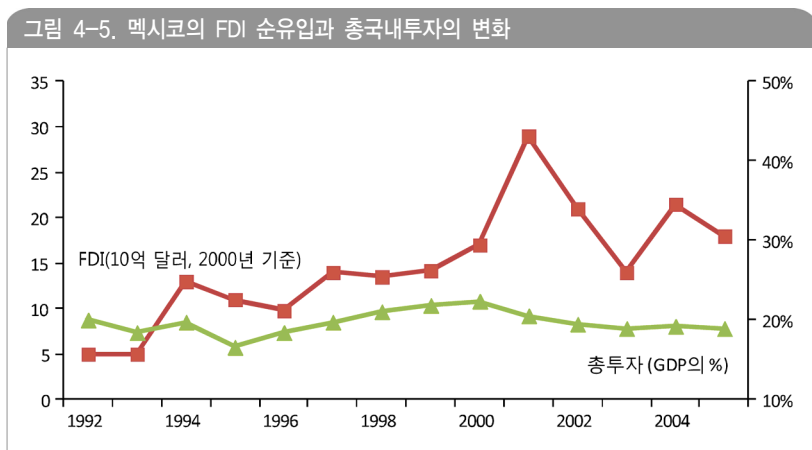
FDI가 멕시코의 고용에 미친 영향도 아주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는 미국으로부터의 FDI와 멕시코 고용 간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시티은행의 멕시코 배너뱅크 인수로 FDI가 크게 증가한 2001년에도 고용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고, 2001년 이후 FDI 유입액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고용은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4-4. 미국으로부터의 FDI와 고용



자료: OECD, ILO.

이는 NAFTA 이후 FDI는 크게 늘어난 반면, 멕시코의 전체적인 투자수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4-5]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멕시코의 FDI 순유입액과 국내 총투자금액의 변화를 비교한다. NAFTA 발효 이후 FDI가 세 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GDP에서 전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보다 낮은 19%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멕시코의 투자실적은 지난 20여 년간 GDP의 40%를 투자한 중국과는 크게 대비되며, World Bank가 개발도상국의 역동적 성장(Dynamic Growth)을 위해 권고하는 투자수준인 25%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Zepeda *et a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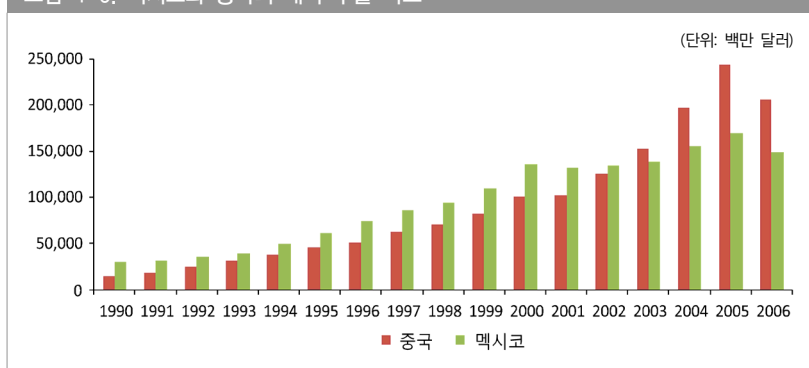


자료: The World Bank.

멕시코 제조업 고용의 변화는 대체로 폐소화 가치절하, 중국 제조업의 성장, 미국과의 경기동조화에 의해 설명된다. 1995년 멕시코 통화위기에 따른 폐소화 가치절하는 멕시코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0년 초반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고용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중국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 확대로 멕시코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

면서 상당수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투자처를 전환하였다. 1990년에서 2006년 사이 중국의 GDP는 연평균 10.4%씩 늘어난 반면, 멕시코는 3.1%의 성장률을 보였고, 같은 기간 대미 수출도 중국은 연평균 18.5% 증가했지만 멕시코는 11.5%에 그쳤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임금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여 멕시코와 중국의 임금 차이가 크게 좁혀졌음에도 중국의 임금은 멕시코의 1/4 수준에 불과하였다(Mendoza 2010). 중국의 등장으로 임금에서 멕시코의 비교우위는 급격히 약화되었고, [그림 4-6]에 나타나듯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결국 멕시코를 능가하였다. 이론적으로 개방은 멕시코의 저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에 이득을 가져다줘야 한다. 이것은 북미지역만을 생각하면 사실이지만,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북미지역에서 멕시코는 저임금국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멕시코의 임금수준은 중간 정도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등장과 함께 멕시코가 노동비용에서 갖는 비교우위는 크게 훼손되었다. 결국 운송비용이 아주 중요하여 미국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에 특별히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들을 제외하고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그림 4-6. 멕시코와 중국의 대미 수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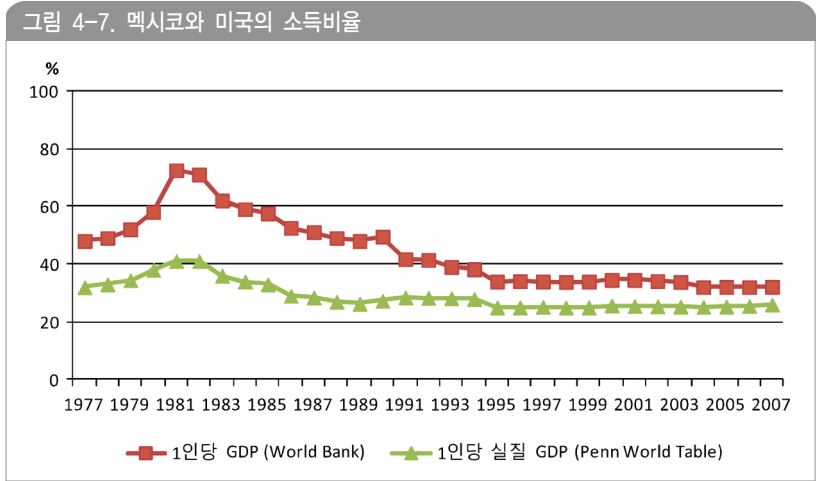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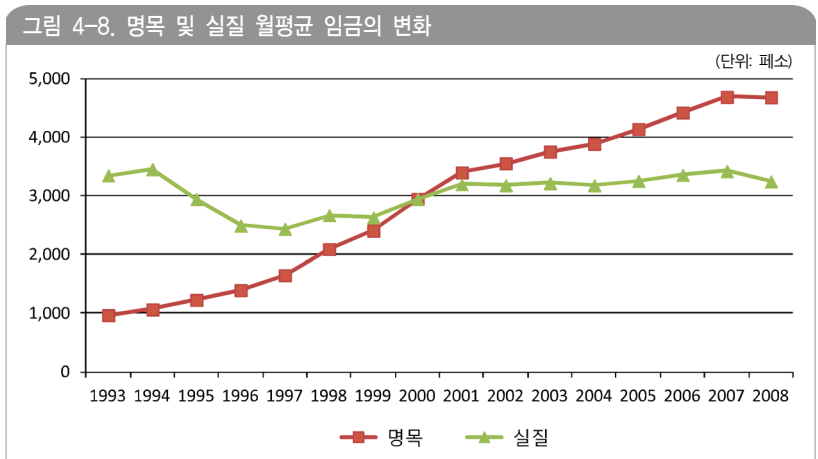
2001년과 최근 멕시코의 고용 악화는 중국과의 경쟁 이외에 미국 경기의 후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NAFTA 이후 멕시코와 미국 제조업 부문의 수직적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두 국가 간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많은 멕시코 제조업이 미국기업의 생산체계 내로 편입되었는데, 특히 마킬라도라는 조립가공을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고 조립된 제품을 수출하면서 미국 제조업체 생산라인 간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NAFTA 체결과 함께 마킬라도라 산업의 고용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멕시코산업총조사(Mexican Industrial Survey)에 따르면, 1998년 전체 제조업 고용 중 마킬라도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였으며, 2003년에는 25%로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의 멕시코 수출산업의 고용변화는 미국의 경기변동이 멕시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가 시작된 2007년 7월과 2009년 7월 사이 멕시코 수출산업의 고용은 191만 명에서 158만 명으로 17%가 감소하였고, 미국 경제가 점진적 회복세로 돌아선 2011년 4월에는 185만 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Velut 2011). 이렇듯 멕시코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용의 증감이 미국의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멕시코가 NAFTA를 통해 기대했던 가장 큰 이득 중 하나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임금격차를 좁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멕시코와 미국 간에 생활수준에서의 격차는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 [그림 4-7은 멕시코와 미국의 1인당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멕시코가 미국의 소득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한 멕시코의 경제발전 정도는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 정의와 관계없이 1995년 이후 확연히 안정된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 NAFTA와 관련하여 두 국가가 경제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1995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멕시코와 미국의 소득비율은 NAFTA 발효 전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국간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198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NAFTA 직전인 1993년에는 미국의 40%,

2007년에는 30%를 기록하였고, 멕시코의 1인당 생산도 1990년대 초반 이래 미국의 1/6 수준에 불과하였다. 제조업 임금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는데, 미국 노동자 평균임금은 1993년과 2007년에 멕시코의 각각 5.6배와 5.8배에 달하였다(Blecker and Esquivel 2010).



자료: The World Bank, Penn World Table.



주: 실질임금은 2000년 가격 기준.

자료: ILO.

[그림 4-8]은 1993년 이래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명목임금은 1993년 1,000페소에서 2008년에는 4,800페소로 꾸준히 증가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995년 경제위기로 인해 급락하였는데, 페소화의 절하에 따른 수입재의 가격 급등과 멕시코 정부의 임금동결조치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1년부터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개선되었다.²³⁾ 그러나 임금상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2008년 실질임금은 NAFTA 체결 직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멕시코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저숙련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Mendoza 2010). 이는 멕시코 노동 공급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NAFTA 이후 고용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멕시코에서 매년 약 100만 명이 노동시장에 새롭게 공급되는 데 비해 창출된 일자리는 평균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노동의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임금 조정 없는 고용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Mollick and Torres(2009)가 1984년에서 2000년까지 멕시코 제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의 생산성과 자본집약도는 상승했으나 자본과 노동 간의 보완적 관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NAFTA 이후 멕시코가 노동의 질적 개선을 이루는 데 실패했고, 이 때문에 임금이 충분히 상승치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3) 3장의 [그림 3-11] 참고.

2. 빈곤과 소득불평등

빈곤은 멕시코의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서 그간 멕시코 정부는 빈곤퇴치를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여겨왔다. [그림 4-9]에 나타난 것처럼, 도시와 농촌에서의 일일생계비가 각각 2달러와 1.5달러 미만으로 정의되는 극빈곤층(extreme poverty)은 NAFTA 직전 멕시코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 경제위기로 빈곤퇴치 노력이 후퇴하면서 40%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후 빈곤문제가 다소 개선되어 2006년에는 14%까지 떨어졌고, 2008년 경기둔화와 함께 다시 18%로 증가하였다. 일일생계비가 각각 4달러와 2.7달러 미만인 도시와 농촌의 일반 빈곤층(moderate poverty)의 비중도 1995년 6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43%까지 하락하였다.²⁴⁾ 농촌지역의 빈곤문제는 도시지역보다 훨씬 심각하여, 2008년 도시지역의 극빈곤층과 일반 빈곤층의 비율이 각각 11%와 40%이었던 것에 반해, 농촌지역은 각각 32%와 61%에 달하였다.²⁵⁾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OECD의 통계도 NAFTA 발효 이후 빈곤율이 대체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소득 중간값(median)의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정의했을 때, 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 22%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18%로 감소하였다. 이는 NAFTA 이전 10년 동안 빈곤율이 21%에서 22%로 증가한 것과는 대비가 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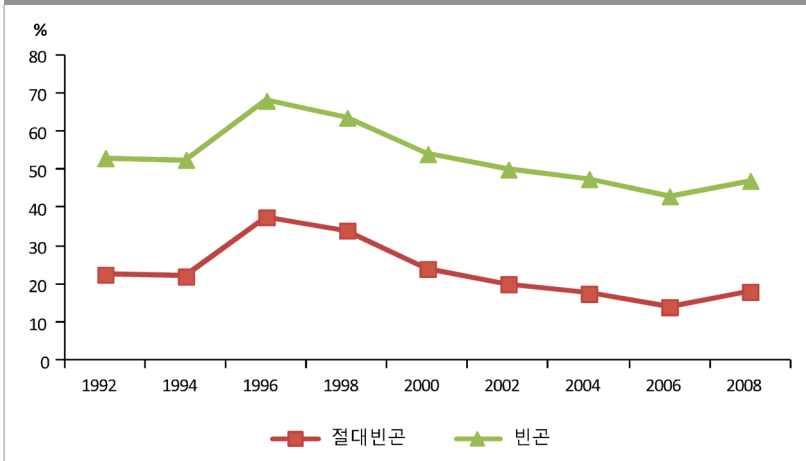
NAFTA 이후 멕시코의 소득불평등 수준도 빈곤율과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였다. Esquivel(2008)은 National Survey Income and Expenditure (ENIGH) 데이터를 이용하여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소득유형별로 지니

24) NAFTA 이후 멕시코의 빈곤율 감소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때문이었다. 멕시코의 Oportunidades 제도는 현금 이전과 같은 직접적 수단과 교육과 보건서비스 제공 등의 간접적 수단을 통해 빈곤 감소에 기여하였다.

25) 5장의 [그림 5-3] 참고.

26) www.sourceoecd.org 참고.

그림 4-9. 빈곤율의 변화



자료: Consejo Nacional de Evaluacion de la Politica de Desarrollo Social(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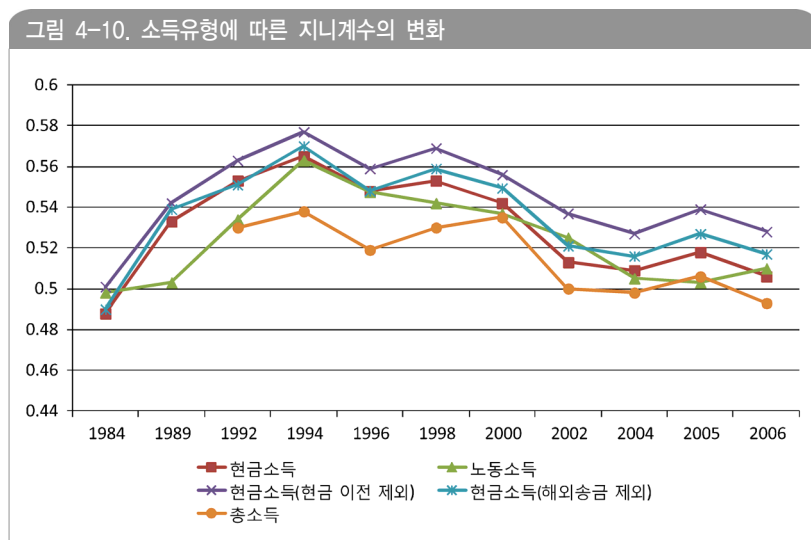
(Gini)계수를 계산하였다. [그림 4-10]에서 지니계수는 NAFTA 발효 시점을 정점으로 뚜렷이 역 U자형의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소득불평등도는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이후 서서히 줄어들었다.²⁷⁾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현금이전을 포함한 현금소득으로 정의한 지니계수는 노동소득의 불평등도가 완화되면서 1994년 0.564에서 2006년에는 10% 감소한 0.505로 낮아졌다.²⁸⁾ 현금소득과 비현금소득의 합으로 계산한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537에서 0.494로 약 8% 가량 감소하였다. 총소득에서의 불평등도가 현금소득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비현금소득에서 불평등도가 그만큼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금소득에서 현금이전과 해외송금을 제외하면, 불평등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현금보조와 해외

27) Robertson(2007)가 멕시코 도시고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요 20개 도시에 거주하는 16~60세 남성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도 이와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인다.

28) Esquivel(2008)이 현금소득의 지니계수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한 결과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노동소득의 불평등도 축소가 지니계수의 감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고, 2000년 들어서는 현금이전과 해외송금도 큰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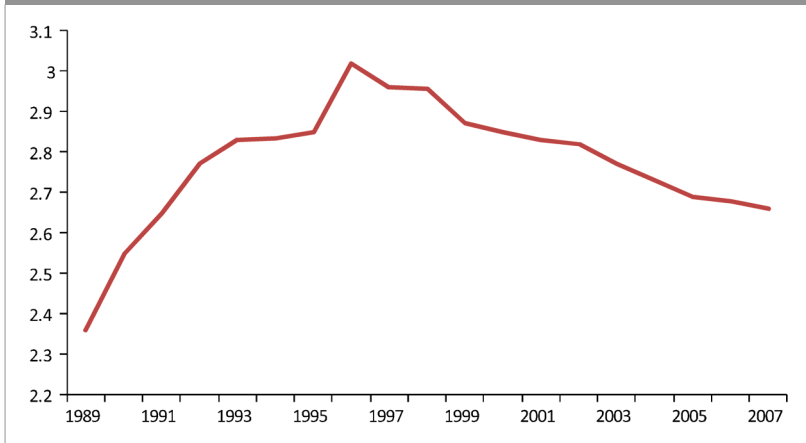
가족으로부터의 송금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NAFTA 이후 멕시코의 소득불평등도는 연간 약 0.8%씩 줄어든 셈이다. 소득불평등의 감소세가 비록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994년과 비교할 때 상당한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금소득에서 불평등도의 변화는 상당 부분 임금구조의 변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노동소득은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곱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노동소득의 변화는 바로 임금의 변화가 된다. 멕시코의 경우 현금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중이 대략 60%가 되므로 노동계층 간 임금격차가 현금소득으로 계산된 지니계수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1]은 멕시코 산업조사에서 나타난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 간 상대임금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사무직과 생산직 간의 임금격차는 1995년 멕시코 통화위기를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6년을 지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그림 4-10]에서 제시된 지니계수의 변화와 매우 유사한 변화 패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Esquivel(2008).

그림 4-11. 사무직 · 생산직 임금비율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그림 4-11]에서 나타난 숙련·비숙련 노동 간²⁹⁾ 임금격차의 변화는 멕시코 전역에서 발생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Esquivel 2008). 이에 따라 멕시코 임금격차의 변화요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멕시코가 개방화 전략을 취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임금격차의 확대에 대해서는 크게 두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저숙련 노동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Fairris *et al.*(2008)은 1980년대 중반 실질 최저임금의 인하에 따른 저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 기준의 후퇴를 강조하였고, Hanson and Harrison(1999)은 저숙련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관세 철폐로 인한 저숙련 노동의 실업 증가를 주원인으로 보았다. 다른 하나는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Feenstra and Hanson(1997), Esquivel and Rodriguez(2003), 그리고 Verhoogen(2008)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결과로서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kill-biased technical changes)이 이루어졌고, 숙련집약적 상품의 가

29) 숙련(skilled)·비숙련(unskilled) 노동은 학력과 직종, 노동연수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는 사무직은 숙련 노동, 생산직은 비숙련 노동을 의미한다.

격이 하락하면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임금격차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Nunnenkamp *et al.*(2007)의 실증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의 멕시코 제조업 고용데이터를 이용하여 FDI가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수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FDI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은 가운데,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의 수요를 모두 증가시켰지만 멕시코 제조업의 숙련집약도가 커지면서 생산직 노동에 대한 효과가 감소하였음을 밝혀냈다.

이 외에 Verhoogen(2008)과 Frias *et al.*(2009)은 1995년 폐소화 위기를 임금격차 확대의 주원인으로 진단하였다. 요컨대 1995년 폐소화의 급격한 절하는 생산성이 높은 수출기업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비수출기업 간에 수익 격차를 가져왔는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서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의 절대임금이 모두 상승하였지만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노동의 임금격차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보다 더 컸다는 것이다. 한편 Lopez(2006)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1980년대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1996년 이후의 숙련·비숙련 노동 간 임금격차의 축소는 주로 NAFTA의 영향에 의해 설명되었다. Robertson(2007)에 따르면, NAFTA 이후 멕시코 제조업이 미국 제조업의 생산체계 내로 편입되면서 조립가공을 위한 저숙련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격차가 축소되었다. 한편 Esquivel(2008)은 1996년 이후 노동의 인적 구성에서 저숙련 노동의 공급이 줄어든 것도 임금격차의 축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였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많은 실증적 사례들은 무역자유화 이후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으로 숙련·비숙련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에서 NAFTA 이후 숙련·비숙련 임금격차가 오히려 축소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무역이론에 따르면, 선진국과 후진국 간 자유무역에 의해 후진국의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는 증가하고 임금격차는 줄어든다. Robertson(2007)이 지적하였듯이, 멕시코의 사례는 NAFTA를 계기로 멕시코와 미국의 지리적 인접성이 양국의 생산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쳐 무역효과가 숙련편향적 기술발전효과를 압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NAFTA 이후 지역 간 소득격차는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Baylis *et al.* (2012)이 1981년부터 2005년까지 멕시코 지방별 소득데이터(SIM BAD: Sistema Municipal de Base Datos)를 분석한 결과, NAFTA 이후 국경 지방의 총소득이 8%가 늘어난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0.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NAFTA의 소득효과가 주로 국경지방에 집중되어 국경과 다른 지방 간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다.³⁰⁾ NAFTA의 효과는 제조업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과 인접한 북부지방의 제조업과 소매업의 성장률이 두드러졌는데, 같은 기간 다른 지방에서는 NAFTA 이후 도시지역의 제조업 성장률이 오히려 둔화되었다. Chiquiar (2008)의 연구에서도 미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ghion(2011)에 따르면, 북부지방에서 전체 임금 중 고숙련 노동에 지급된 임금의 비중이 남부지방보다 컸다. 북부지방에서 고숙련 노동의 고용 증가가 그 지역의 절대적인 임금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북부와 남부의 임금격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의 노동 이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ghion(2011)은 주원인으로 남부지방의 낮은 교육수준을 지목하였다. 멕시코 정부가 NAFTA 이후 남부지방에 빈곤퇴치정책을 통해 교육에 적지 않은 투자를

30) 이외에도 Baylis *et al.*(2012)의 연구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는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한 지방 내에서 빈약한 인프라를 가진 지역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 하수도과 전기시설의 수준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게다가 고졸 이하의 저숙련 노동 비율이 높은 지역의 소득이 NAFTA 이후 더 많이 늘어났으나 문맹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NAFTA 이후 소득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되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남부지방의 숙련격차는 줄어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득격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NAFTA 이후 미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과 숙련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이 지급되었고 교육에 대한 수익은 증가하였다.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멕시코 각 지방 간 임금격차의 확대로 이어졌다. 1995년 멕시코 폐소 위기는 멕시코 전체 지역의 실질임금을 크게 감소시켰으나, 폐소화 절하로 인해 수출산업 중심인 국경지방의 생산은 늘어났다. 해외시장, 특히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고숙련 노동자들이 NAFTA로부터 혜택을 보았다. 다국적기업과 수출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강했고 운송과 통신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NAFTA는 지역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Esquivel *et al.*(2010)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NAFTA가 미국과 인접한 북부지방의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농업 지역인 남부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치 않다. 1990년대 미국과 거리가 먼 지역 중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인 곳이 많기 때문에, NAFTA 이후에 남부지방의 성장률이 북부지방보다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NAFTA가 남부지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유무역은 인적자본과 인프라가 양호하고 지방정부의 규제가 적은 지역에 이득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부는 NAFTA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Hanson(2006)은 멕시코의 지역 간 소득불균형의 원인에 대해 조금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멕시코는 개방과 함께 민영화와 규제 철폐를 단행했고 토지제도를 개혁하였다. 민영화와 규제 철폐는 멕시코의 노동조합을 약화시켰고, 이 부문에서 노동자들이 누려왔던 임금 프리미엄을 축소시켰다. 노동조합이 강한 산업들이 주로 북부와 중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들에서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멕시

코는 또한 토지정책을 변경하여 개인들이 공동경작지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정책은 농업 생산과 고용의 비중이 높은 남부지방의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에 나타난 것은 정반대의 결과였다. Hanson(2006)은 이와 같은 소득추세의 이반현상이 개방화와는 무관하게 과거부터 이어져온 것을 반영하는 것이거나 개방정책과 병행한 국내 개혁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Alvarado(2008)는 멕시코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본질적으로 멕시코의 토지정책에 관한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토지가 집중화되었는데, 특히 이것은 농촌지역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1917년부터 1991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작게 쪼개어 분배하였다. 그 결과 농업의 수익성은 떨어졌으며 많은 수의 빈농이 양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NAFTA는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과 옥수수 및 콩 재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NAFTA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는 멕시코 경제에 활력소를 제공했지만 극빈층과 자유무역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1970년대 높은 출산을 때문에 매년 노동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신규 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증가는 노동의 공급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지역과 교육수준이 더 높은 이들에게 집중되었다(표 4-1 참고).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지역들이 개방화에 참여하고 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했으나, 멕시코 정부는 공공지출에 필요한 정부재정을 석유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고, 석유 수입이 감소하면서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수 없었다.

표 4-1. 멕시코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현상	선행연구	주요 원인
사무직/생산직 임금격차 확대 (1996년 이전)	Fairris <i>et al.</i> (2008)	임금 동결에 따른 실질 최저임금 하락
	Hanson & Harrison(1999)	저숙련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관세철폐로 저숙련노동 실업 증가
	Feenstra & Hanson(1997), Esquivel & Rodriguez(2003), Verhoogen(2008)	숙련편향적 기술발전과 숙련집약적 상품가격 하락으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Verhoogen(2004)	1994년 이후 폐소화의 급격한 절하로 수출기업 중심의 숙련임금 상승
	Lopez(2005)	교육기회의 불평등
사무직/생산직 임금격차 축소 (1996년 이후)	Robertson(2007)	미국 제조업과의 수직적 통합으로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Esquivel(2008)	저숙련 노동의 공급 감소
북부/남부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	Chiquiar(2008), Esquivel <i>et al.</i> (2010)	국경지방 중심의 수출제조업과 소매업 성장
	Aghion(2011)	북부와 남부의 교육격차
	Hanson(2006), Alvarado(2008)	개방화와 무관하게 멕시코의 역사와 관련, 특히 토지제도의 영향이 지대

자료: 필자 정리.

농업과 농촌 경제

1. 농업 개혁과 자유화

1980년대 이전 멕시코 농업정책은 농지 소유, 식료품 유통, 가격, 농업금융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개입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1980년대 외채위기를 계기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개혁과 개방 정책이 시행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국가의 개입을 줄이면서 시장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개혁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에히도(ejido) 농지의 소유권 행사를 자유화하고,³¹⁾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간접 보조금과 국영생필품공사(CONASUPO)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³²⁾ NAFTA로 완성되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착수했다. [표 5-1]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에서 시행되었던 농업부문의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정리한다.

31) 193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전국의 대농장을 지역공동체 구성들이 각각의 구역을 경작하는 토지 공동소유제를 뜻한다. 에히도 농지는 세습이 가능한 반면, 매매나 임대될 수 없어 민간부문의 투자가 불가능했다. 1991년 기준 전체 농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De Janvry *et al.*(1997) 참고.

32) CONASUPO(Compañía Nacional de Subsistencia Populares)는 농산물을 높은 생산자 가격으로 구매한 후 가공을 거친 중간재 및 최종재를 낮은 소비자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농민과 도시지역 빈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국영기업으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농가소득을 관장하였다. CONASUPO의 청산에 대해서는 Yunez(2003) 참고.

표 5-1. 주요 농업 개혁 및 자유화 조치

정책	주요 내용	시행연도
GATT 가입 이후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91년 농산물 수입허가 폐지 • 1991~94년 농산물 관세화(0~20%) 	1986~94년
농업 관련 국영기업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 종자, 비료산업, 창고설비 민영화 • 담배, 설탕, 커피 관련 국영판매기업 청산 	1988~89년
농지재산권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재분배 정책 종결 • 에히도 토지 개인권리 인정 • 에히도 토지 매매, 임대, 담보 제공 허용 • 에히도 토지 관련 조합 설립 가능 	1992년
생산자가격 지원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2001년 농산물 생산자가격 지원 폐지 • CONASUPO 청산(1999년) 	1989~2001년
NA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및 수입 허가제 폐지, 농산물 관세화 • 15년 이내 모든 관세 폐지 및 민감품목 할당관세 • 국내 보조금, SPS, 원산지, 포장 등 개입 인정 • WTO/UR과의 일치성 	1994년

자료: Yunez(2012).

멕시코의 농업정책에는 시장개방 및 규제 완화 이외에도 농업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정책도 포함되었다. 이 지원정책들은 대부분의 멕시코 농촌 및 농업부문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개혁 및 자유화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농업 자유화와 병행하여 시행된 농업지원정책은 농축수산물농촌개발부(SAGARPA)가 담당했다. SAGARPA는 농업판매지원서비스기관(ASERCA)을 설립하여 기업형 농가와 기초 농작물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이행정책인 직불제도(PROCAMPO)를 관리하도록 했다.³³⁾ ASERCA는 기

33) 직불제도(PROCAMPO: Program of Direct Payments to the Countryside)는 NAFTA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되었다. 2001년까지는 구매자보조금이었으나 이후 농가보조금으로 바뀌었다.

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소득이전정책으로서 1974년 미국에서 시행된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인 부족불지불제도(Ingreso Objetivo)와 유사하였다.³⁴⁾ 이 제도는 구매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주요 곡물 및 유지종자)과 수입 농산물을 차별하지 않도록 ‘비차별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기준가격(concentrated price)과 국제가격 간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³⁵⁾ 이와 함께 농촌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자본 확충, 그리고 농업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농촌동맹(Alianza para el Campo)을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주정부가 특정 제도를 통제, 평가, 이행하고, 참여농가의 기여금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지방분권적인 특성을 지녔다. 또한 빈곤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농업 및 비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농촌개발정책(Programa de Desarrollo Rural)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개혁 및 개방 정책의 추진과 함께, 멕시코에서는 그 기대효과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표 5-2]에서 나타난 것처럼 멕시코 정부와 많은 선행연구는 농업부문의 개혁과 자유화가 자원 재배분을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NAFTA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수준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농민과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농업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그들은 곡물과 유지종자, 축산물 분야에서 미국과 생산격차가 큰 반면, 과일 및 채소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NAFTA로 인해 대외 식량의존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는 전체 농산물을 포괄하는 시장개방안을 NA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NAFTA가 가져다주는 경제 전반의

34) 1992년 11월 EU와 체결한 『블레이하우스협정』을 통해 부족불지불제도는 허용보조로 인정받았고, 1996년 농업법에서 가격지지 대신 생산중립적인 직접지불제도로 대체되었다.

35) 수확시즌 이전에 특정 농작물의 국제가격과 수송비를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매매 시 국제가격과 기준가격 간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효과를 강조하여 멕시코 경제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관세장벽이 철폐됨으로써 대미 농산물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표 5-2. 농업 개혁과 자유화의 기대효과	
	농업 개혁 · 개방의 기대효과
농업 상품 구조와 경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비관세 철폐로 각 작물의 비교 우위/열위에 따라 수출 및 수입이 증가 •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으로 국내 농산물의 단위생산비용 및 가격 하락³⁶⁾ • 수입 예상 농산물의 경작지 감소, 수출 예상 농산물의 경작지 증가 • 수입 예상 농산물의 산출량은 생산성이 낮은 경작지 매각, 임대, 재배작물 전환(과일/채소) 등에 따른 경작지 감소와 생산자 퇴출에도 불구하고 증가
농업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히도 토지개혁과 NAFTA로 인하여 증가, 현대적인 영농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
이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구조조정으로 이농 증가, 중기적으로는 도시와 미국으로의 이민은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외 이민은 감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신용 보조금 철폐와 농업 금융시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로 생산성 향상 • 국내 산업보호 철폐로 트랙터, 관개장비, 비료, 개량종자 등 농업부문의 물리적 자본 및 투입재의 가격 인하

자료: Casco and Rosensweig(2000); Krueger *et al.*(1991); Levy and Wijnbergen(1992); Robinson *et al.*(1991); Rosensweig(2000a, 2000b); Quiroz and Opazo(2000)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2. 주요 농업 경제지표

멕시코의 농업 GDP 성장률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제 농산물가격 상승

36) 미국이 멕시코가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 결정자라는 점과 멕시코의 최대 농산물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NAFTA 체제에서 미국 농산물이 수입될 경우 국내가격은 낮은 수입가격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으로 전기와 비교할 때 비교적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체 GDP 대비 농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멕시코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참고). 농작물 GDP에서 차지하는 주요 작물별 생산비중을 살펴보면, 옥수수는 1980~88년 35%에서 2005~08년 21%로, 옥수수를 제외한 곡물은 28%에서 12%로, 유지종자는 8%에서 1%로 각각 급감한 반면에, 과일은 17~20% 수준에서, 채소는 12~14% 수준에서 등락했다. 한편 축산업 GDP에서 양계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88년 17%에서 2005~09년 36%로 증가한 반면, 목축업(47% → 41%) 및 양돈업(33% → 19%) 비중은 각각 감소했다.³⁷⁾

연도	농업		농작물 및 축산		식음료가공	
	GDP	비중	GDP	비중	GDP	비중
1980~88년	-0.1	6.3	0.9	3.7	2.0	4.3
1989~93년	1.3	6.3	2.3	-	5.4	4.7
1994~98년	-1.7	5.3	-2.5	3.5	1.6	4.8
1999~2004년	0.4	3.7	-0.7	2.4	4.0	4.8
2005~08년	5.1	3.6	8.1	2.2	3.2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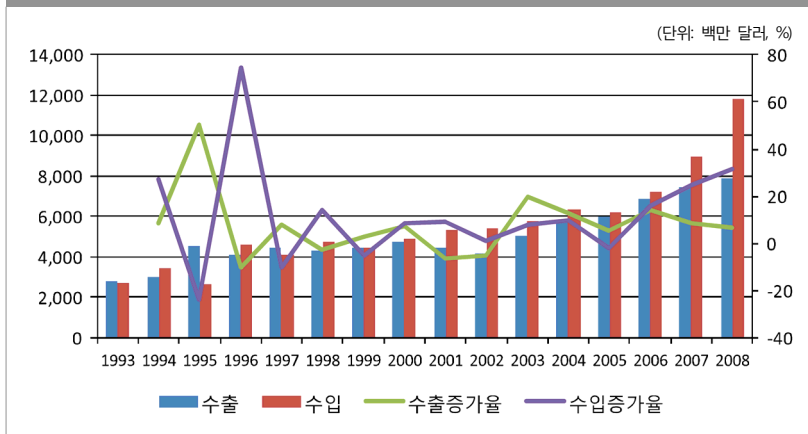
주: 2002년 패소 기준, 농업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포함.

자료: Banco de Información Económica(BIE) de INEGI.

[그림 5-1]은 멕시코 농업교역의 추이를 보여준다. NAFTA 출범 이후 2008년까지 멕시코의 농업교역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여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NAFTA 발효 전후 멕시코의 전체 농업교역에서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80%를 상회한 점을 고려하면, NAFTA 발효 이후 미국과의 농업교역이 전체 농업교역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7) Yunez(2012) 참고.

그림 5-1. 농업교역 추이



자료: INEGI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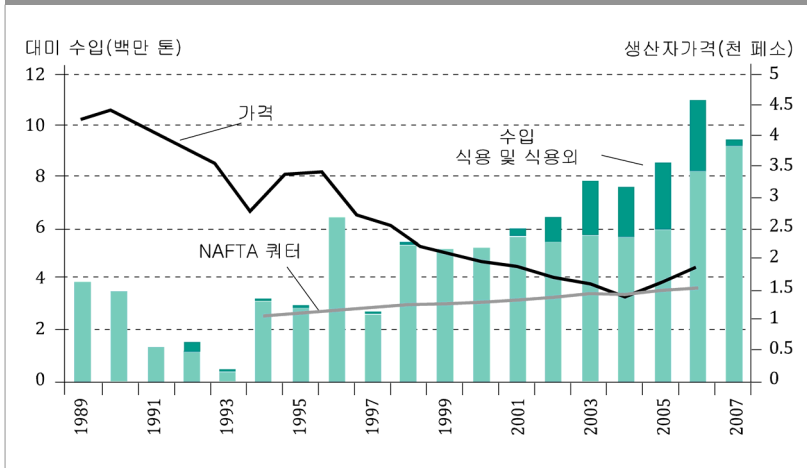
농산물별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농업부문에서 개방으로 인해 구조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Yunez(2012)에 따르면, 달러 기준으로 농업 수입에서 기초 농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93년 기간 평균 30%에서 2005~08년에는 20%로 줄어든 반면, 축산물 비중은 6%에서 12%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요 기초 농작물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축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기초 농작물의 경우에도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미 수입비중이 작물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여 대미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옥수수, 수수, 강낭콩, 면화종자 등의 대미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NAFTA 발효 전후 95~100%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밀과 대두는 각각 10%와 15%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과일 및 채소의 수출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였고, 미국시장을 둘러싼 중미 등 주변국들과의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시장개방 기대효과에 부합하여 회원국 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 간의 농산물 교역은 증가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 대비 교역비중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NAFTA 협상에 반대했던 측이 우려했던 것처럼 농업시장 개방으로 국가 간에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멕시코 국내적으로도 곡물생산부문과 과일 및 채소 생산부문 간에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였다.

NAFTA 기대효과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방 이전 멕시코가 보호해 온 경쟁력 없는 농작물의 가격이 미국산 수입 농산물가격과 수렴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가격 수렴은 멕시코 농업 생산 및 교역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Yunez(2012)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멕시코의 대맥, 옥수수, 수수, 밀, 쌀, 유지종자와 같은 주요 농작물의 생산자가격은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멕시코와 미국 농산물 간의 장기적인 가격 수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AFTA 출범 2~3년차이던 1995년과 1996년은 폐소화 위기 후유증에 노출된 시기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기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및 수렴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았으나, 장기적 추세는 가격 하락 및 수렴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2]는 농업개방 이후의 대미 옥수수 수입과 국내 생산자가격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NAFTA 출범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의 국내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지만, 국내 생산부문, 특히 소규모 농가의 소득은 악화되었다. 미국 농업과의 심각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멕시코 농가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성의 원인인 생산성은 물론 회원국 간 차별적인 농업보조금 수준을 균형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미국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재정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NAFTA를 전제할 WTO/DDA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반덤핑 혹은 상계관세조치 현재 NAFTA 체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5-2. 옥수수 수입과 생산자가격 추이



자료: Wise(2010).

Yunez(2012)는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멕시코 주요 수입 농작물의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멕시코 주요 농산물의 교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면화종자, 쌀, 대두, 밀의 수입은 각각 2000년, 1992년, 1989년, 그리고 199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강낭콩, 대맥, 옥수수, 수수의 수입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멕시코의 전체 농업 수출과 주요 과일 및 채소(토마토, 신선채소, 멜론, 수박, 신선과일) 수출에서는 NAFTA를 계기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시기가 1994년 말부터 1995년 초반으로 페소 위기 기간과 일치하였는데, 이는 NAFTA와 더불어 급격한 환율 상승도 변화의 원인이었음을 추론케 한다.

NAFTA 이후 경쟁력이 없는 주요 농작물의 생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지종자(대두 1979년, 참깨 1981년, 면화종자 1982년)의 생산에서는 NAFTA 이전부터 농업개혁의 영향으로 구조적 감소가 일어난 반면, 주요 곡물(대맥 2000년, 옥수수 1992년)에서는 구조적 증가가 발

생하였다. 그러나 밀의 경우 국내 생산이 1995년부터 감소하고 있었지만 강낭콩 및 수수와 더불어 국내 공급에서 구조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NAFTA로 피해가 예상된 주요 수입 예상 농산물, 특히 곡물(옥수수)의 산출량 증가는 지역적으로 더욱 차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Yunez 2012). 이는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 간, 그리고 북부지방과 남부지방 간의 양극화라는 전통적인 멕시코 농업의 ‘이중적 이중성’이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NAFTA 이후 더욱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NAFTA 이후 멕시코의 수출 예상 농산물과 더불어 수입 예상 농산물의 국내 산출량은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체제도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시장의 진입장벽이 개방화 과정에서 상당 수준 제거되더라도 경쟁력이 부족한 주요 작물의 국내 생산조차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입품과의 경쟁과 강제된 구조조정에도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한 멕시코의 옥수수가 대표적 사례로, 농업시장 개방과 구조조정을 활용하여 옥수수 기업농은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소농의 경우 작물전환이나 전업보다는 구조화된 영농에 안주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농들은 NAFTA 발효 이전부터 멕시코 농촌사회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NAFTA라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생산단위(AUP)³⁸⁾ 수는 1.2%, AUP 면적은 3.9%, 그리고 AUP 평균 면적은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UP 평균 규모에서도 2헥타르 이하 경작지는 줄어든 반면에, 2~5헥타르 경작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5헥타르 이상 경작지는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AUP 현황은 멕시코 농지구조의 심각한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5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AUP 수는 1991년

38) AUP(Agricultural Unit of Production)는 동일 행정구역에 위치한 영농을 하는 토지소유단위(농촌지역 경작 혹은 휴경지, 도시지역 경작지)를 뜻한다.

전체 AUP 수의 60%에서 2007년 68%로 증가했으나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50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AUP 수는 전체 AUP 수의 3%에 불과하지만, 전체 농지면적의 40%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농업 개혁과 자유화는 소규모 경작지와 소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참고).

표 5-4. AUP 별 평균 규모, 수 및 비중						
구분 (헥타르)	AUP 평균 규모(헥타르)		전체 AUP 수 대비 비중		AUP 총면적 대비 비중	
	1991년	2007년	1991년	2007년	1991년	2007년
2 이하	1.12	1.09	34.6%	44.5%	4.7%	6.1%
2~5	3.41	3.46	25.3%	24.2%	10.6%	10.5%
5~20	8.78	9.23	31.2%	23.2%	33.5%	26.8%
20~50	20.51	25.256	5.3%	5.1%	13.2%	16.2%
50~100	42.64	51.68	1.8%	1.7%	9.2%	11.3%
100~1,000	104.11	130.58	1.7%	1.2%	21.2%	20.5%
1,000~2,500	351.45	517.82	0.1%	0.05%	3.7%	3.1%
2,500 이상	710.86	1,724.79	0.04%	0.03%	3.8%	5.5%
전체/평균	8.18	7.96	100.0%	100.0%	100.0%	100.0%

자료: 멕시코 농업총조사(1991, 2007).

개인이 소유한 에히도 농지의 전체 면적은 2007년에 1991년 대비 23.2% 증가한 반면, 소유권 유형별 에히도 농지의 평균 면적은 8.5헥타르에서 7.5헥타르로 감소했다. 개인 소유 에히도 농지의 전체 면적이 증가한 원인은 1992년 농지소유권 개혁 이후 공공토지의 배분과 개인 경작을 위한 공동체 농지의 분할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농업 자유화 및 농지소유권 개혁의 기대효과와 달리 농지소유권은 더욱 세분화되었다. 즉 소규모 농장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고, 농업용 에히도 농지의 민간부문 소유도 증가하지 않았다. 농업용 에히도 농지의 민간부문 소유가 증가하지 않은 주된 원인은 민영화된 20% 농지 대부분이 도시 및 해안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예상과는 달리 농지시

장은 발전하지 않았다. 또한 소규모 농장 수 증가는 농업금융에 대한 접근을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원인이 된 동시에 생계형 생산 확대와 영농기 계화 발전 저해의 원인이 되었다.

표 5-5. 농지소유권 변화

구분		소유권 유형				총계
		에히도(개인)	공동체	민간	공공	
규모 (헥타르)	1991년	30,031,644	4,338,099	70,493,493	1,315,198	106,179,434
	2007년	37,009,850	3,783,889	69,672,269	492,580	110,958,557
	증가율 (%)	23.2	-12.8	-1.2	-62.5	4.5
비중 (%)	1991년	28.3	4.1	66.4	1.2	100.0
	2007년	33.4	3.4	62.8	0.4	100.0

자료: 멕시코 농업총조사(1991, 2007).

멕시코 통계청(INEGI) 자료에 따르면 농촌인구는 1980년 2,930만 명에서 2009년 2,980만 명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고용은 2000년 670만 명에서 2010년 580만 명으로 감소했다.³⁹⁾ 그러나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과 도시인구 및 고용과의 비중을 감안할 경우, 농촌 인구 및 고용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즉 전체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중은 1980년 43.5%에서 2010년 23.1%로, 전체 고용 대비 농촌고용은 2000년 17.7%에서 2010년 13.1%로 크게 감소했다.

NAFTA 이후 농업소득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비농업 임금노동소득과 공공(보조금) 및 민간(송금)의 이전이 주요 소득원으로 부상했다. 멕시코 전국농촌가구조사(ENHRUM 2002)⁴⁰⁾에 따르면, 농가의 순소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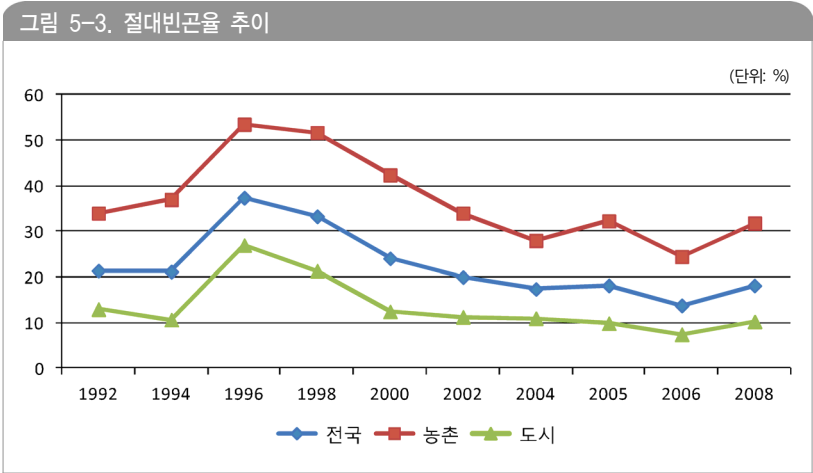
39) INEGI의 농촌고용 통계는 농업과 수산업 고용에 한정하고 있고, 2000년 이전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40) ENHRUM은 El Colegio de México의 경제연구소(Centro de Estudios Económicos)와 Universidad de California en Davis의 Rural Economies of the Americas and Pacific

미국 이주자로부터의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활동으로 획득한 순 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임금은 NAFTA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사회보장기구(IMSS)에 등록된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농업과 다른 산업간의 임금격차는 NAFTA 이후 꾸준히 확대되었다(표 5-6 참고).

연도	전체	건설업	제조업
1994~98년	-41.20	-18.07	-34.71
1999~2004년	-40.77	-20.52	-36.87
2005~08년	-43.85	-29.34	-45.26
2009~10년	-44.83	-27.96	-50.27

자료: 멕시코 노동부.



자료: 국가사회개발정책평가위원회(CONEVAL).

Rim(REAP)가 공동운영하는 제도(PRECESAM: Programa de Estudios del Cambio Económico y la Sustentabilidad del Agro Mexicano)에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빈곤수준도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하였다. [그림 5-3]은 멕시코의 농촌과 도시의 절대빈곤율의 차이를 보여준다.⁴¹⁾ 농촌지역의 빈곤율은 1995년 폐소 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31.8%를 기록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빈곤율 역시 1995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과 도시의 빈곤율 격차는 2000년까지 대체로 30%의 격차를 보였으나 이후 그 격차는 20% 수준으로 줄었다.

NAFTA 출범 이후에도 멕시코 농촌 노동력의 이농현상은 지속되었다. NAFTA 출범 이전 추세와 동일하게 주요 이주지역은 국내 도시와 미국 이었고, 미국으로의 이주가 도시로의 이주보다 높게 나타났다. Taylor and Dyer(2003)가 ENHRUM(2002) 통계를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농촌 인구 가운데 국내 도시로의 이주자는 1994년과 2002년에는 각각 1980년의 1.8배와 3.4배였지만, 미국으로의 이주자는 1980년 대비 1994년 0.9배에서 2002년에는 4.5배로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NAFTA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농지개혁으로 토지의 세습이 없어지고, 도시경제의 저성장으로 국내 도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농촌 노동력이 미국으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1995년 경제 위기에 따른 폐소화의 절하로 멕시코에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 확보와 송금을 위한 미국 이민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결과적으로 NAFTA 이후 이농현상은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옥수수과 같은 주요 곡물의 산출량과 생산체제가 유지되었고, 농촌지역에 농업 이외의 소득원이 개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농지소유권 개혁 이후 대물림 가능성이 낮아진 일부 청년층의 이농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농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력이 적다는 측면도 작용했다.

41) 절대빈곤(또는 일반빈곤)의 정의에 관해서는 4장 2절 참고.

3.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2000년부터 NAFTA 체제하의 옥수수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농민을 포함한 대중적 저항이 발생하자 멕시코 정부는 농업정책을 수정하였다. 2001년 농업정책의 범위 확대와 식량주권 및 안보 확립을 위해 지속가능한농촌개발법(LDRS: Ley de Desarrollo Rural Sustentable)을 제정했다.⁴²⁾ 이 법률은 정책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정책의 분권화와 정책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모든 정부부처의 참여를 의무화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멕시코 국민의 저항에 대응한 정책 수정은 농업개혁과 NAFTA를 비롯한 개방의 기대효과가 실현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정부의 기존 농업 지원정책들이 비효율적으로 집행, 관리되거나 정책목적을 충실하게 따르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LDRS 이전에 실행되었던 지원정책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과 그에 따른 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⁴³⁾ 따라서 LDRS는 기존 농업지원정책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LDRS 제정 이후에도 농업지원정책들이 여전히 유사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Caballero(2006), Yunez *et al.*(2007), Scott(2010), 그리고 Yunez(2010) 등이 지적한 농업정책의 한계는 농축수산물농촌개발부(SAGARPA)에 대한 농업 및 농촌부문 공공기금의 편중, 정책의 분권화 부족, 부처 간 협력 부족, 농업정책 방향의 독창성 및 혁신 부족 등이었다. 특히 2001년에서 2008년까지 농업부문 재정지출이 두 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 지출의 구성과 SAGARPA의 기본적인 정책목적

42) 식량주권 및 안보와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는 2003년에 NAFTA 옥수수 자유화에 주로 반대해온 농업조직들과 「농촌협정(Acuerdo Nacional para el Campo)」을 체결했다.

43) LDRS 이전의 농업지원정책은 5장 1절 참고.

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⁴⁴⁾

그러나 멕시코 농업지원정책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주요 보조금제도가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는지 여부였다. Fox and Haight(2010)는 정책결정자의 재량권과 기득권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멕시코 농업지원정책의 투명성은 결여되고 효율적인 공공책임성이 훼손된 것으로 평가했다.⁴⁵⁾ 또한 OECD(2006)와 Scott(2009)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패자인 저소득 농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고안된 직불제도(PROCAMPO)를 비롯한 기타 보조금제도들도 본래 목표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농가와 농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전용됨으로써 농업부문의 불평등을 가중시켰다. 구체적으로 영농규모 상위 10%의 생산자가 직불제도의 45%, 부족불지불제도(Ingreso Objetivo)의 80%, 농촌동맹(Alianza para el Campo)의 55%를 각각 지원받았다. 또한 농지 소유 기준으로 상위 10%는 에너지 및 농업용수 보조금 60%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농촌인구 대부분은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직불제도를 제외한 다른 제도의 지원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cott(2010)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10%의 빈농의 경우 직불제도의 2~3%와 부족불지불제도의 10%를 지원받은 반면, 상위 10%의 생산자는 직불제도의 42%, 부족불지불제도의 85%, 농촌개발정책(Programa de Desarrollo Rural)의 55%, 그리고 에너지 및 용수 보조금의 60%를 지원받아 여전히 정부혜택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제도의 특성은 대규모 기업농의 협상력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원제도들이 높은 생산능력을 지닌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립된 것에서

44) 1994~2008년 사이 농가에 지급한 직불금은 약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45) 불투명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혜자 명단 불투명(수혜자에 공무원 포함), 수혜농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부재, 각종 보조금제도별 수혜자 리스트 부재에 따른 상호 겹침 및 세부 부문별·수혜자별 지원금액 산정 불가 등을 제시하였다.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산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하는 농촌개발제도는 생산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수혜자가 제안하고, 생산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참여자가 분담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가난한 농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한 부족불지불제도를 통한 농업보조금의 경우 북부의 대규모 기업농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특정 지방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⁴⁶⁾ 그 외에도 농업판매지원서비스기관(ASERCA) 지원 제도의 경우 특정 지역의 특정 작물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⁴⁷⁾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농업지원정책은 NAFTA로 농업시장이 완전개방 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본연의 목적에 따른 정책의 집행 측면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특히 가장 포용적인 정책인 직불제도를 비롯하여 유통지원제도 및 농업생산투자제도들도 관료와 기득권의 영향력으로 인해 본연의 목적에서 다소 이탈되어 운영됨으로써 농업의 생산부문 간, 소득계층 간, 그리고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개방에 대응한 멕시코의 농업정책 사례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마련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과거로 회귀하거나 오히려 농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46) 예를 들면 2005년에 부족불지불제도 예산의 50%는 시날로아주의 옥수수 기업농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고, 나머지는 소노라주 밀 기업농, 치와와주 면화 기업농, 그리고 타마울리파스주 수수 기업농 지원에 각각 투입되었다.

47) 농업판매지원서비스기관(ASERCA)은 2000~05년 사이에 예산의 70%에 달하는 연간 4.3억 달러에서 6억 달러를 주요 곡물 농가에 투입하였고, 이 보조금 가운데 50%를 옥수수 농가에, 특히 옥수수 보조금 가운데 70%를 북부의 시날로아주 농가에 지급했다.

결론

멕시코는 1980년대 거듭되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입대체전략을 개방화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1994년에는 NAFTA를 체결함으로써 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하였다. 멕시코는 수출과 투자를 동력으로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다른 부문으로 전파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지출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멕시코를 줄곧 괴롭혀왔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멕시코에게 NAFTA는 이와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거시경제 개혁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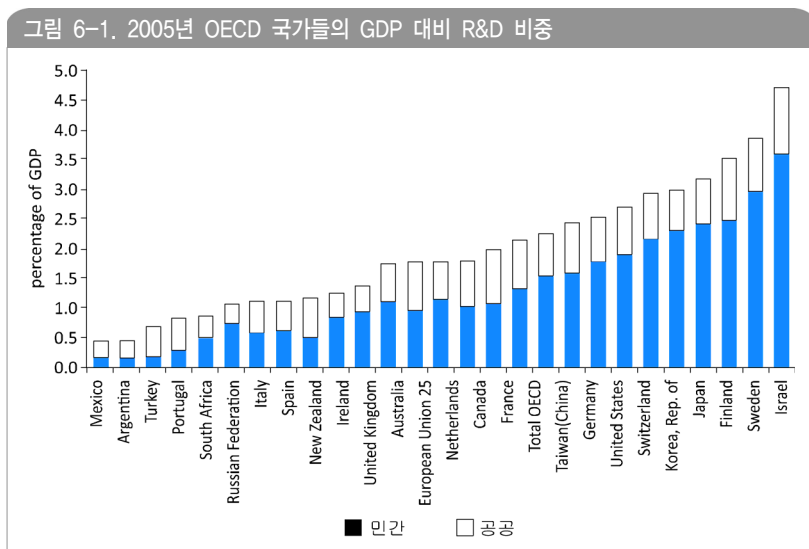
우리는 멕시코가 개방화 전략을 취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NAFTA가 발효된 1994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NAFTA를 전후로 멕시코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아냈다. 멕시코의 개혁·개방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도 크게 낮아져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수출제조업분야의 역동성이 멕시코 경제 자체를 생산적인 경제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수입 중간재와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후방 연계산업들은 쇠퇴하여 제조업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⁴⁸⁾ 이에 따라 고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동공급을 모두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수출 제조업체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면, 개방의 이득도 특정 지역에 주로 집중된 반면 남부의 농촌지역은 소외되어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었고,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소득의 수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멕시코는 NAFTA로 대표되는 경제개방의 잠재적, 장기적 혜택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에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멕시코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를 장기적 성장의 반석 위에 올려놓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많은 선행연구는 1995년 멕시코 폐소위기, 2000년대 들어서 미국 경기의 후퇴와 중국 제조업의 성장, 그리고 구조 조정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Salvatore 2007; Oladipo 2010; Villareal 2010). 우리는 이상에서 언급된 것들 중 과거 한국과 중국의 성공사례에 비추어 멕시코 국내정책의 실패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개방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영기업이 중심이 되어 인적자원 육성과 기술 획득, 수출능력 강화를 통해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수출시장을 다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멕시코의 전략은 민영화와 규제 철폐, 즉 국가의 비용으로 민간부문을 성장엔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민영화의 목적은 단지 재정의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민영화의 본질인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는 관심이 없었다. 민영화는 공기업 독점을 단지 민간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했다. 민영화 과정에서 탄생한 대기업들은 제도적 보호 하에서 개혁과 발전의 유인을 갖지 못하였다. 기술혁신으로 일

48) UNCTAD(2002)에 따르면, 1990년대 멕시코 수출은 명목달러로 한국과 동일한 속도로 증가했지만,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한국의 1/2 수준에 머물렀다.

시적인 독점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대추구(rent seeking)를 통한 현재 수익의 극대화에 집중하였다(Mayer 2008). [그림 6-1]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민간부문의 R&D 투자는 GDP의 0.15%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⁴⁹⁾ 바로 이것이 멕시코가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국내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도적인 국내산업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자료: OECD(2006).

멕시코의 산업정책도 새로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데 적절치 않았다. 멕시코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해외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한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정부지출 축소를 목표로 대부분의 재정 및 금융 지원제도를 폐지하였고, 이는 멕시코의 취약한 은행시스템과 맞물려 민간투자를 위축시켰다.⁵⁰⁾

49) 2005년 멕시코 전체 R&D 투자 중 민간부문의 기여는 34.7%에 불과한 반면, 같은 해 OECD 평균은 61.9%였다(OECD 2006).

50) 1996년과 2005년 사이 생산 활동에 대한 은행 신용은 GDP 대비 15% 이상 축소되었

특히 은행 신용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되었던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활동과 사업구조의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이에 따라 전방의 수출산업을 지지해주는 후방의 중간재 산업이 크게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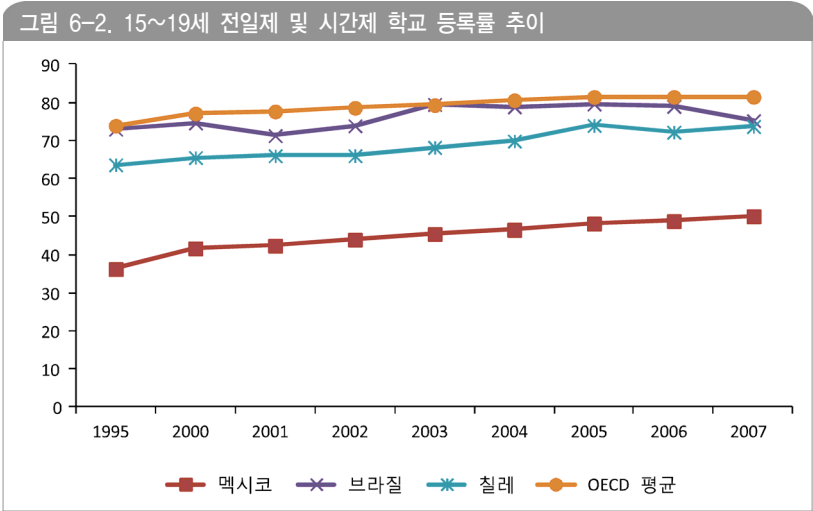
또한 멕시코의 개방정책은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육성, 기술발전전략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였다.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출 축소로 항만시설과 고속도로 건설, 현대적 통신망 구축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했다(Mayer 2008; Velut 2011). 이에 반해 교육부문에는 2006년 기준 GDP의 6%에 달하는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었지만, 그 성과는 저조했다(OECD 2009). [그림 6-2에서 알 수 있듯이, 15세에서 19세 인구의 학교 등록률은 2007년 기준 5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으며, 같은 남미 국가인 브라질과 칠레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2006년 기준 학생당 교육 투자 지출액도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쳐 교육의 질이 매우 낮았다(그림 6-3 참고). 특히 OECD(2009)에 따르면, 멕시코 교육부문은 과도하게 높은 노동집약도 때문에 교육 투자의 거의 90%가 교사와 직원의 봉급으로 지출된 반면,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교육 혁신과 인적자원의 기술습득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⁵¹⁾

멕시코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비용과 미국시장과의 인접성에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와 빈약한 인프라, 그리고 인적자본과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비교열위 또한 존재하였다. 그 결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멕시코에서 조립·가공되던 중간재와 최종재의 상당 부분이 임금을 포함한 생산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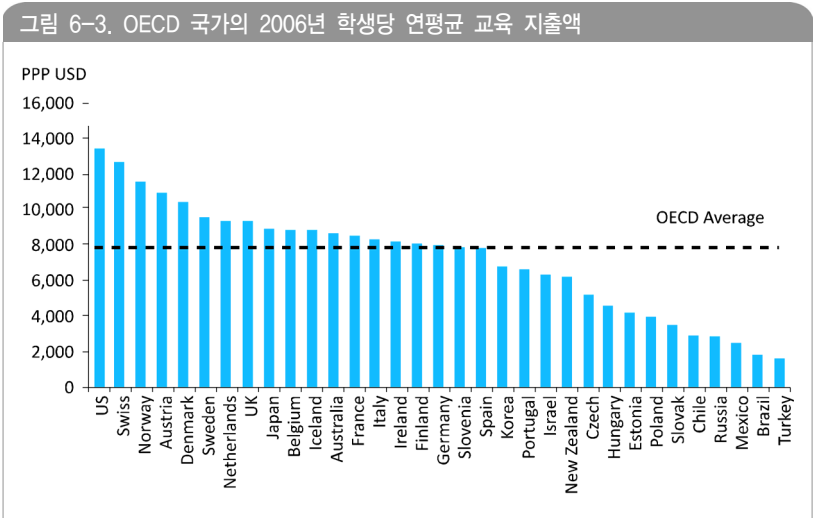
다(Moreno *et al.* 2005).

51) 이에 따라 멕시코의 교육성취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OECD(2009)에서 발표한 국가별 PISA 점수는 학생당 지출이 유사한 러시아와 칠레가 멕시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더 저렴한 중국으로 이전되었다. 또한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된 것도 멕시코가 국내 개발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내 경제를 견인하는 강력한 성장엔진을 발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자료: OECD.



자료: OECD.

멕시코는 개방의 과정이나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첫째, 미국 경기가 후퇴할 때마다 멕시코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나친 대미 수출의존도를 고민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이 20%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는 정보기술과 자동차 부문을 포함한 선도산업에서의 기술우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중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들은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수출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던 멕시코가 중국과의 임금경쟁에서 밀리면서 성장동력을 잃어버렸듯이, 우리도 새로운 선도산업을 개발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패한다면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꾸준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과 산업정책의 핵심요소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되짚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확고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졌다면, 이와 관련한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여 금융과 인적자원의 지원을 포함한 모든 정부의 지원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그 결실의 파급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의 개발에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와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소득이 저절로 그들에게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한 소득의 수렴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멕시코의 사례에서 교육과 혁신, 인프라, 그리고 국가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다. 우리도 익히 경험하였듯이,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교육여

건의 개선과 질적 향상에 아낌없는 지원을 함으로써 인적자원이 경쟁력 있는 다양한 산업에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와의 FTA를 통해 대외개방의 폭을 넓혀왔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유무역의 혜택은 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는 않는다. 멕시코의 경험은 자유무역으로부터 이른바 승자(winner)와 패자(loser)의 존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산업, 지역, 그리고 계층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농업부문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민들이 경쟁력 있는 작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고 농업지역에 다른 고용창출원을 개발하는 한편, 농민들이 현대적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멕시코의 경우처럼 만약 지역간 격차가 문제라면 인적자원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멕시코 사례에서 본 교훈 중 하나는 노동생산의 증가는 임금 증가의 필수조건인 반면, 임금의 증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더욱 중요하게는 생산성 증대의 결과를 배분하는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세계화의 진전과 FTA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쉽게 저임금국가에 접근할 수 있고, 이는 노사의 역학관계에서 사용자의 협상력을 높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의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그 과실이 보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동기준(Labor Standard)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제정책의 성과는 정부, 기업, 개인을 포함한 각 경제주체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면, 그 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각 경제주체의 협력을 통한 상생의 발전이 바로 NAFTA하에서 멕시코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일 것이다.

• 국문자료

- 강문성. 2001. 「NAFTA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 『비교경제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 권기수. 2005. 「멕시코 마킬라도라(Maquiladora)산업: NAFTA의 최대 수혜자」. 『국제지역정보』, 제143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김원호 · 강문성 · 나수엽 · 김진호. 2000. 「NA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0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현수 · 박수종. 2007.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이성형. 2007. 「NAFTA와 멕시코(1994~2006): 경제적 · 사회적 효과」. 『경제와 사회』, 2007년 겨울호(통권 제76호). 한국비판사회학회.

• 외국문자료

- Aghion, E. 2011. *NAFTA and its Impact on Mexico*. The American University of Paris.
- Alvarado, E. 2008. "Poverty and Inequality in Mexico after NAFTA: Challenges, Setbacks and Implications." *Estudios Fronterizos*, 9(17), pp. 73-105.
- Baylis, K., R. Garduno, and G. Piras. 2012.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NAFTA in Mexico: Evidence from a Panel of Municipaliti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42, pp. 286-302.
- Bergoing, R., P. Kehoe, T. Kehoe, and R. Soto. 2002. "A Decade Lost and Found: Mexico and Chile in the 1980'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5, pp. 166-205.
- Blecker, R. and G. Esquivel. 2010. "NAFTA, Trade, and Development." USMEX WP 10-01.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 Bulmer, V. 2001. "Regional Integration and Intra-Industry Trade." In Victor Bulmer-Thomas ed. *Regional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Political Economy of Open Regionalism*. London: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Caballero, J. 2006. "Mexico: Decentralization of Rural Development Programs," Vol. II of the World Bank Report, Decentralization Service Delivery for the Poor, Report 35692-ME.

Casco, A, and F. Rosensweig. 2000. *La Política Sectorial Agropecuaria en México: Balance de una Década*. Instituto Interamericano de Cooperación para la Agricultura(IICA). México.

Chiquiar, D. 2008. "Globalization, Regional Wage Differentials and the Stolper-Samuelson Theorem: Evidence from Mexic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4, pp. 70-93.

Cordellier, Serge et Béatrice Didiot ed. 2006. *L'Etat du monde 2006*. Paris: La Découverte.

De Hoyos, R. and L. Iacovone. 2011. "Economic Performance under NAFTA: A Firm-Level Analysis of the Trade-Productivity Linkag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661. The World Bank.

De Janvry, A., G. Gordillo, and E. Sadoulet. 1997. Mexico's Second Agrarian Reform.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

DeLong, J., C. DeLong, and S. Robinson. 1996. "In Defense of Mexico's Rescue." *Foreign Affairs*, 75(3), pp. 8-14.

Esquivel, G. 2008. *The Dynamics of Income Inequality in Mexico since NAFTA*. El Colegio de Mexico.

Esquivel, G. and J. Rodriguez. 2003. "Technology, Trade, and Wage Inequality in Mexico before and after NAFT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2, pp. 543-565.

Esquivel G., D. Laderman, M. Massmacher, and R. Villoro. 2010. *Why NAFTA Did Not Reach the South*. The World Bank.

Fairris, D., G. Popli, and E. Zepeda. 2008. "Minimum Wages and the Wage Structure in Mexico." *Review of Social Economy*, 66(2), pp. 181-208.

Feenstra, R. and G. Hanson. 1997.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ive Wages: Evidence from Mexico's Maquilador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4, pp. 371-394.

- Fox, J. and L. Haight, 2010. *Subsidizing inequality: Mexican Corn Policy since NAFTA*.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CIDE.
- Frias, J., D. Kaplan and E. Verhoogen, 2009. *Exports and Wage Premia: Evidence from Mexican Employer-Employee Data*.
- Garza, E. 2003. "NAFTA, Manufactura y Trabajo," en E. de la Garza y C. Salas(coord). *NAFTA y Mecosur: Procesos de Apertura Económica y Trabajo*. Buenos Aires: CLACSO.
- Gould, D. 1998. "Has NAFTA Changed North American Trade?" *Economic and Financial Policy Review*, 1, pp. 12-23.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 Hanson, G. 2003. "What Has Happened to Wages in Mexico Since NAFTA? Implication for Hemisphere Free Trade." NBER Working Paper 9563.
- _____. 2006. *Globalization, Labor Income, and Poverty in Mexico*.
- Hanson, G. and A. Harrison, 1999. "Trade, Technology, and Wage Inequality in Mexico."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2(2), pp. 271-288.
- Hufbauer, G., J. Schott, and Y. Wong. 2003. "NA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Working Paper.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INEGI. Estadística: Sector Externo. Banco de Información Económica(BIE).
- _____. 1991, 2007. Censos Agropecuarios.
- Kose, M., G. Meredith, and C. Towe. 2004. "How Has NAFTA Affected the Mexican Economy? Review and Evidence." IMF Working Paper WP/04/59.
- Krueger, A. 1999.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under NAFTA." NBER Working Paper 7429.
- _____. 2000. "NAFTA's Effects: A Preliminary Assessment." *The World Economy*, 23(6), pp. 761-775.
- Krueger, A., M. Schiff and A. Valdés. 1991.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Pricing Policy*, Vol. 1: Latin Americ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ederman, D., M. William, and L. Servén. 2003. *Lessons from NAFTA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The World Bank.
- Levy, S. and S. Wijnbergen. 1992. "Mexican Agriculture in the Free Trade

- Agreement: Transition Problems in Economic Reform,” Technical Papers 63. OECD Development Center.
- Lopez, J. 2002. “NAFTA and Mexico’s Manufacturing Productiv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Using Micro-Level Data,” Working Paper.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Lopez, G. 2006. “Mexico: Two Decades of the Evolution of Education and Inequalit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919. The World Bank.
- Mattar, J., J. Moreno, and W. Peres. 2003. “Foreign Investment in Mexico after Economic Reform,” In K. Middlebrook and E. Zepeda eds. *Confronting Development: Assessing Mexico’s Economic and Social Policy Challenges*, pp. 123-160.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yer, C. 2008. *Perverse Equilibria: Unsuitable but Durable Institutions*. The World Bank.
- Mendoza, J. 2010. “The Effect of the Chinese Economy on Mexican Maquiladora Employment,” *The International Trade Journal*, 24(1), pp. 52-83.
- Miles, W. and C. Vijverberg. 2011. “Mexico’s Business Cycles and Synchronization with the USA in the Post-NAFTA Year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5(4), pp. 638-650.
- Mollick, A. and R. Torres. 2009. “Productivity Effects on Mexican Manufacturing Employment,” *The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20(1), pp. 66-81.
- Moreno, J. and J. Ros. 2004. “Mexico’s Market Reforms in Historical Perspective,” Working Paper 04/05. David Rockefeller Center for Latin American Stud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Moreno, J., J. Valdivia, and J. Santamaria. 2005.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Mexico after NAFTA: The Road Travelled,” *Development and Change*, 36(6), pp. 1095-1119. Institute of Social Studies.
- Nunnenkamp, P., J. Bremont, and A. Waldkirch. 2007. “FDI in Mexico: An Empirical Assessment of Employment Effects,” Kiel Working Paper 1328.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 OECD. 1999-2009. *OECD Economic Survey: Mexico*.
- _____. 2002. “Intra-industry and Intra-firm Trade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 of Production.” *OECD Economic Outlook*, 71, pp. 159-170.
- _____. 2006a.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_____. 2006b. Agricultural and Fisheries Policies in Mexico: Recent Achievements, Continuing the Reform Agenda.
- _____. 2009. “Education at a Glance 2009.” OECD Indicators.
- Oladipo, O. 2010. “Does Trade Liberalization Cause Long Run Economic Growth in Mexico?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3(3), pp. 63-74.
- Polaski, S. 2006. *The Employment Consequences of NAFT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Quiroz, J. and L. Opazo. 2000. “The Krueger-Schiff-Valdés Study Ten Years Later: A Latin American Perspectiv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pp. 181-196.
- Robertson, R. 2007. “Trade and Wages: Two Puzzles from Mexico.” *The World Economy*, pp. 1378-1398.
- Robinson, S., M. Burfisher, R., Hinojosa, and K. Thierfelder. 1991. “Agricultural Policies and Migration in a U.S.-Mexico Free Trade Area: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Working Paper 617.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 Romalis, J. 2002. “NAFTA’s and CUSFTA’s Impact on North American Trade.” University of Chicago Working Paper.
- Ros, J. 1994. “Mexico’s Trade and Industrialization Experience since 1960.” In G. K. Helleiner ed. *Trad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Turbulent Times*, pp. 170-216. London: Routledge.
- Rosensweig, A. 2000a. “Mexican Agricultural Trade under NAFTA: An Assessment after five years of implementation,” Presented at the 7th Policy Disputes Information Consortium Workshop, San Diego.
- _____. A. 2000b. “On NAFTA: Mexican Experience after Six Years of Implementation,” Presented at the 7th Policy Disputes Information Consortium Workshop, Tucson.
- Salas, C. 2003. “Integración Económica, Empleo y Salarios.” en E. de la Garza y C. Salas(coord). *NAFTA y Mecosur: Procesos de Apertura Económica y*

- Trabajo. Buenos Aires: CLACSO.
- Salvatore, D. 2007. "Economic Effects of NAFTA on Mexico." *Global Economy Journal*, 7(1), pp. 1-13.
- _____. 2010. *Measuring the Economic of NAFTA on Mexico*. CESifo Forum.
- Sánchez, M. and N. Karp. 1999. "NAFTA's Economic Effects on Mexico." Working Paper presented at the NBER 12th Annual Inter-American Seminar on Economics, Buenos Aires, Argentina, December 2-4.
- Schiff, M. and Y. Wang. 2002. "Regional Integration and Technology Diffusion: The Case of NAFTA," Working Paper. The World Bank.
- Scott, J. 2009. "Redistributive Constraints under High Inequality: The Case of Mexico." Research for Public Policy, Inclusive Development, ID-07-2009, RBLAC-UNDP, New York.
- _____. 2010. "Agricultural Subsidies in Mexico: Who gets What?" Ch. 3 in *Subsidizing inequality: Mexican Corn Policy since NAFTA*, Jonathan Fox and Libby Haight ed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CIDE.
- Stiglitz, J. 2004. "The Broken Promise of NAFTA," *New York Times*.
- Taylor, J. and G. Dyer. 2003. "NAFTA, Trade and Migration." Presented at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Project, NAFTA.
- Tornell, A. and G. Esquivel.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Mexico's Entry to NAFTA." NBER Working Paper 5322.
- Torres, R. and A. Mollick. 2011. "Intra-industry trade Effects on Mexican Manufacturing Productivity before and after NAFT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20(1), pp. 87-112.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 Vega, J. 2003. "Balance: 10 Años del TLCAN, Antecedente del ALCA," *Teoría Práctica*, pp. 11-12.
- Velut, J. 2011. "NAFTA's Developmental Impact on Mexico: Assessment and Prospects," *Integrations dans les Ameriques 1*, Institut des Ameriques.
- Verhoogen, E. 2008. "Trade, Quality Upgrading, and Wage Inequality in the Mexican Manufacturing Secto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3(2), pp. 489-530.

- Villarreal, M. A. 2010. *NAFTA and the Mexican Econom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Waldkirch, A. 2003. "The New Regionalism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ase of Mexico,"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12(2), pp. 151-184.
- Wise, T. 2010. "Agricultural Dumping Under NAFTA: Estimating the Costs of U.S. Agricultural Policies to Mexican Producers," Mexican Rural Development Research Report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Whally, J. 1998. "Why do countries seek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J. Frankel ed.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pp. 6-9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unez, A. 2003. "The Dismantling of CONASUPO, a Mexican State Trader in Agriculture," *The World Economy*, 26, pp. 97-122.
- _____. 2010. "Las Políticas Públicas Dirigidas al Sector Rural: el Carácter de Las Reformas Para el Cambio Estructural," In Economía Rural ed. por A. Yunez-Nauze, El Colegio de México.
- _____. 2012. *The Effects of Agricultural Domestic and Trade Liberalization on Food Security: Lessons from Mexico*. Centro de Estudios Económicos, El Colegio de México.
- Yunez, A., G. Leal, H. Ceron, and J. Mora. 2007. *Evaluación del Impacto de PROCAMP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d Mexican Ministry of Agriculture.
- Zepeda, E., T. Wise, and K. Gallagher. 2009. "Rethinking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Lessons from Mexico under NAFTA," Policy Outloo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Lessons from Mexico under NAFTA

Chankwon Bae, Hyeyoon Keum, and Jin-O Kim

This study reviews Mexico's economic performance under NAFTA, focusing on the changes in major economic indicators, and particularly, employment and income before and after the inception of NAFTA. There have been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flation, budget deficits, and exports and FDI, but not as successful as in the expansion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during the post-NAFTA era. We find a source of Mexico's economic problems today in a lack of its appropriate domestic development policy. We als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trade policy from the experience of Mexico under NAFTA.

KIEP 최근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2년

12-0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배찬권 · 금혜윤 · 김진오

■ 2011년

11-01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11-02 장쑤성(江蘇省)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 노수연

11-03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김정곤 · 김균태

11-04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사점 / 김부용
ODA 정책연구 11-01

11-05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
손기태 · 김민희 · 박수경
ODA 정책연구 11-02

11-06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
권 율 · 박수경 · 이주영
ODA 정책연구 11-03

11-07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 정지원 · 정지선
ODA 정책연구 11-04

11-08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 정지원 · 박수경 · 임소영
ODA 정책연구 11-05

11-09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정지선 · 이주영
ODA 기초연구 11-01

11-10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
김종일 · 김낙년 · 황원규 · 윤미경
ODA 기초연구 11-02

11-11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 강인수 · 송유철 · 유진수

11-12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
정형곤 · 방호경

ODA 기초연구 11-03

- 11-13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
한홍렬 · 이호생 · 이시욱

ODA 기초연구 11-04

- 11-14 ODA 분야에서의 민간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 노한균

ODA 기초연구 11-05

-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 김철희

- 11-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

-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
이창재 · 정재완 · 방호경

- 11-18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
노수연 · 곽주영

- 11-19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김정곤 · 금혜윤

-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평가(2001~10년) /
홍익표 · 이종운 · 김지연 · 양문수 · 이찬우 · 임수호 · 방호경

-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 고희채 · 이보람 · 오민아

- 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 박윌라 · 최의현

-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김부용 · 오종혁

-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
정지현 · 이혁구

-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 이상훈

-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 정지현

전략지역심층연구 11-01

-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 · 임정성 · 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02

-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 방안 / 이순철 · 이영일

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 · 은기수 · 박 건 · 장원봉 · 유성용 · 정혜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 11-30 한·인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방안 / 김현제 · 조상민 · 박찬국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웅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중 · 이동윤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 11-33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홍국 · 윤진표 · 이한우 · 최경희 · 김동엽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 · 신민금 · 김홍구 · 조영희 · 이요한
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 · 박나리 · 김형준 · 홍석준 · 원순구 · 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 · 강인수 · 송유철 · 한홍렬
전략지역심층연구 11-11
- 11-37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 · 강대창 · 김유미 · 박나리 · 장준영 · 최재현 · 우꼬레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정세진 · 박정호 · 박병인 · 나희승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 11-39 한·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 · 김안국 · 김영진 · 김일겸 · 성동기 · 홍미희 · 이시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 11-40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 · 주진홍 · 강명구 · 김영식 · 오영일 · 이상준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
이재영 · 이시영 · 이평래 · 윤익중 · Avirmed S.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6
- 11-4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7
- 11-4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8
- 11-4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9
- 11-4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
- 전략지역심층연구 11-20
- 11-4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앙아시아 2
- 전략지역심층연구 11-21
- 11-4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
몽골, 터키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8
- 11-48 브라질의 '파워외교'와 한국의 시사점 / 김원호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9
- 11-49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중남미 기술협력전략 / 김종섭 · 박민경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0
- 11-50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 서정민 · 인남식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1
- 11-5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 이희수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3
- 11-52 한·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 방안 연구 /
허재준 · 염지환 · 김봉훈 · 이건준 · 김상식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4
- 11-53 과테말라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의 수거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정우현 · 추장민 · 한동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5
- 11-54 중동·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튀니지·리비아를 중심으로 / 홍현표·장홍석·안재현·한덕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6
- 11-55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의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박지형·성현곤·황보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7
- 11-5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 방안 연구 / 오삼교·이남섭·최윤국·홍옥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8
- 11-57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김창민·주종택·최진숙·강정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9
-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정경원·조희문·문남권·유동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0
- 11-59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1
- 11-60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 김영철·임두빈·김우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2
- 11-6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 조성권·주미영·박상현·하상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3
- 11-62 최근 MENA 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 문정인·이광열·고아름·김현규·김진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4
- 11-63 한국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 조홍식·신동찬·이유봉·황형준·조정익·정대원·강형석·김 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5
- 11-6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 이충열·이영수·제상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6
-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 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 김정숙·김양주·임기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11-66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
황병하·김강석·김선하·김화선·최지원

저자 약력

배찬권(裴燦權)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ckbae@kiep.go.kr)

저서 및 논문

Three Essays on Knowledge Spillovers (2011) 외

금혜윤(琴惠允)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hykeum@kiep.go.kr)

저서 및 논문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공저, 2010)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공저, 2011) 외

김진오(金眞梧)

한국의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학 석사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jo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공저, 201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1)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D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_____ (한문) _____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_____
담당자 연락처	전화 _____ E-mail : _____ FAX _____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_____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References 12-01

Lessons from Mexico under NAFTA

Chankwon Bae, Hyeyoon Keum, and Jin-O Kim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994년 NAFTA를 통해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험이 각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험에서 생산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멕시코와 NAFTA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분야별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FTA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23063
ISBN 978-89-322-2306-3
978-89-322-2064-2(세트)
정가 5,000원